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삶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또 이전으로 돌아가는 죄 된 습성을 버리고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찾으며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9월 18일 (토) 제 1842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됨” 과 부흥” 으로 나아간다!

CT, 9.11테러 직후 ‘일치와 부흥’ 희망 실현되지 못한 원인 비판적 제시

2001년 9.11테러 직후는 이상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적인 시간처럼 보였다. 2001년 필립 안시는 "9월 11일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라고 썼다. 잠시 동안 그는 생각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느낌은 '우리가 우리의 땅,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게 했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사소한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으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뿌리로 돌아가도록' 강요했다."

당시 다시 미국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일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었다. 교회 출석률이 급증했고 기독교 지도자들은 국가적 부흥을 예언하기 시작했다. 2001년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품위, 친절, 서로에 대한 헌신을 칭송했다.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한 9.11 공격 20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그 희망이 이루어졌는가?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일치/하나됨을 유지하지 못했다. 순식간에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군사 침공, 고문, 애국법 등을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그 이후로 우리의 정치적 분열은 더욱 첨예해지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정치적 담론은 반역과 심지어 내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크리스천티투데이(Christianity Today, CT)는 9.11테러 20주년을 맞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유일한 실망이 아니라고 말한다. 예언된 부흥도 결코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Why 9.11 Brought Neither Unity Nor Revival: Many Christians think spiritual renewal followed the terrorist attacks, but the record shows otherwise).

9.11테러 이후 몇 주 동안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곧 "미국의 종교 관행에 큰 각성이나 심오한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2001년 11월에 컬럼 편집장은 지적했다.

바나리서치 역시 2006년에 그 결론을 확인했다. "영성과 믿음의 19가지 차원"을 추적한 결과 공격전 조치와 "19가지 지표 중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9.11 공격은 미국 기독교인들을 더 정통신앙이나 더 일관된 기도습관, 교회출석 또는 성경읽기 습관으로 가는 궤도에 올려놓지 않았다.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측정할 수 있는 한 미국 종교의 쇠퇴는 빠르게 계속됐다.

2001년에 필립 안시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았던 것과 거의 같은 시기에 미국인들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는 것처럼 하찮은 일과 고조되는



반감으로 돌아섰다(잠26:11). 죽음을 새롭게 인식하는 문화로서 우리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를 뜻하는 라틴어 낱말)를 진지하게 숙고하는 것이 아니라, YOLO(you only live once)의 무모함을 받아들였다. 바나리서치의 데이빗 킨너맨은 이렇게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1테러가 영적 각성을 촉발했다는 신화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2013년 바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특히 거듭난 기독교인은 9.11 테러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들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9.11테러 직후 미국인들 특히 크리스천들이 그토록 회구했던 '하나됨'과 '영적부흥'이 기대만큼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복음화대회 마지막 날 회장 문석호 목사(왼쪽)가 강사 양창근 선교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호산나대회 첫날 집회후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이의철 목사회장, 이정환 회장, 진유철 강사, 고현승 부회장

뉴욕/뉴저지 9월 10-12일 복음화대회 개최

뉴욕-할렐루야복음화대회, 강사 양창근 선교사
뉴저지-호산나전도대회, 강사 진유철 목사

뉴욕과 뉴저지 기독교계의 가장 상징적인 복음화대회가 올해는 같은 시기에 개최됐다.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는 지난 10일 오전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11일과 12일 저녁집회를 가졌으며 뉴저지교협이 주최하는 호산나전도대회는 10일 저녁부터 사흘간 저녁집회를 갖고 13일 오전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두 대회의 공통점은 또 하나, 대회강사들이 모두 파라과이 선교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뉴욕할렐루야대회 강사 양창근 선교사는 37년간 파라과이에서 현지인과 인도교를 하고 있으며 호산나대회 강사 진유철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파송 파라과이 선교사로 17년간 사역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펜데믹 상황에서 모두 대면과 온라인으로 중계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했다.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선교부흥과 영성회복"을 주제로 삼고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에서 열린 대회 첫날 회장 문석호 목사는 '미래를 향해 새로움으로 나아갑시다'라는 대회사에서 "코로나 위기는 인류미래를 어두운 종말로 행하게 하는 절박한 과제를 남겨주고 있다"며, "겸손한 마음으로 점검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중하게 귀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살길임을 고백하고 교회의 본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 '영성회복'과 '선교회복'을 두 기둥 삼아 함께 하나 되어 역사하는 주님의 자리가 되기

를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오후 7시30분 시작된 대회는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 인도로 경배와찬양 및 합심기도 인도로 경배와찬양 및 합심기도 뉴욕장로교회찬양팀, 개회선언 및 개회사 문석호 목사, 환영인사 김학진 목사, 내빈소개 이대우 목사(미주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대표기도 이기웅 목사, 성경봉독 송윤섭 장로, 찬양 뉴욕장로교회 연합찬양대, 강사소개 문석호 목사, 설교 양창근 선교사, 헌금특송 뉴욕장로성가

단, 헌금기도 주영광 목사, 광고 김희숙 목사, 축도 허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양창근 선교사는 전날 열렸던 목회자세미나에서 했던 간증에 이어 4대째 기독교를 믿는 가정임을 소개하고 9.11사태 20주년을 언급하며 테러나 펜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며 부흥을 외치자고 강조했다.

<3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푸른초장 양수철 목사



특별기고 이만호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books.com / cj@jcb.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히즈핑거 (His Finger)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발행인 칼럼

그래서 설교자는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설교자는 확신하는 자이다. 무엇보다 설교자는 모든 성경에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풍조에 밀려 성경 대신 이것저것에 기웃거리는 자가 될 것이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3:15-17). 그리고 설교자는 부르심을 확신해야 한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또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왜 여기 있는 것인지 모호해 한다면 정체성을 잃은 다른 영역의 사람들이 일으킬 참담함과 비교 안 될 재앙을 단지게 된다. 설교자는 설교의 변화의 능력을 확신해야 한다. 설교자가 설교에 이런 변화의 능력이 있는지 모르고 설교한다면 미사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미사일을 다루는 군인과도 같은 것이다. 설교로 변화될 일들에 확신이 없다면 주일 예배, 그 소중한 시간에 설교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설교자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설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확신해야 한다.

설교자는 대언자이며 선견자며 선지자이며 예언자이다.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그대로의 대언자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는 아니다. 그러나 오늘의 설교자도 분명히 마치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는 설교의 역할이 어찌 과(寡)하다 하겠는가. 오늘의 설교자도 온갖 박해를 받고 있다. “내 말을 내가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신 18:18b);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지라”(사 30:10); “아마사야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냐민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리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 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니라”(암7:12-16a).

설교자는 가슴 앓는 자이다. 자신이 당한 일이 역울해서가 아니다. 복음에 무관심한 자들 때문에 아프다.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오래 동안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대놓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아예 주님을 등지고 가는 자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앞으로 만날 일들을 생각하며 가슴앓이를 한다. 설교자는 살길이 말씀밖에 없는 것을 분명히 알기에 살길을 거부하는 자들을 떠올리며 끔끔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건축가이다. 설교자는 설교라는 멋진 집을 만든다. 어떤 집도 디자인 없이 세울 수 없다. 디자인이 없는 집은 보기에 안 좋을 뿐 아니라 매우 위험하다.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아름다운 건물이 세워지고 견고한 디자인에서 견고한 집이 만들어지고 웅장한 디자인에서 웅장한 집이 탄생한다. 그래서 설교자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며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다.

with 코로나 시대... ‘현재 집중’으로 극복한다!

엘레멘탈 매거진, 불확실성이 주는 폐해/효과 설명과 대처 방안 제시

1927년 공포소설의 아버지 H. P. 러브크래프트는 이렇게 썼다. “인간의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러브크래프트는 인간의 뇌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 특별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이후 이어진 수십 년 동안의 심리학 연구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불확실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은 여러 불안증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있다. 불확실성이 공황 발작을 유발하는 “파국적 해석(catastrophic interpretations)”의 원인이 된다는 증거도 있다. 어떤 과학자들은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공포

의 근본적인 원인이며 이 불확실성을 얼마나 잘 견디는지가 건강하고 탄력적인 정신의 기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금 전 세계는 마치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으며 사람들의 삶은 한정 없이 멈춰있다. 과학전문매거진 ‘엘레멘탈(Elemental)’은 바로 지금이 불확실성에 대한 연구 결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한다(Science Explains Why Uncertainty Is So Hard on Our Brain And how to knock out its effects).

2014년 네이처에 실린 한 연구는 불확실성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습관적이고 자동적 정신 작용을 방해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불확실성은 뇌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과잉경계상태를 만들고 부정적인 사실이나 경험에 대해 과도한 반응을 보이게 만든다. 곧, 불확실성은 걱정이라는 불씨에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다. 이제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위협을 발견하게 되며 그 위협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

“불확실성은 불안증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이는 불안증은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연구의 공저자

다리는 여성들의 불안증 정도가 유방암 확진을 받은 여성들보다도 더 높았음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 사람들은 조직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불확실성의

비행기가 지연될 때 느끼는 스트레스 또한 불확실성에 의한 것이다.

2014년 버스 승차자들에게 대한 연구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들은 기대 값이 적은 대신 선택의 결과를 빨리 알려주는 선택지를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 곧, 불안증이 있는 이들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돈을 더 지불한다는 뜻이다.

불확실성의 효과를 이기기

사람들은 불확실성에 대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처한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이들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은 방식을 택한다는 것이다.

노이만은 많은 이들이 그 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불확실성이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커 더 나쁜 결과 선택 걱정은 더 많은 걱정 초래... 걱정할 특정 시간 장소 정해

이자 위스콘신대학 메디슨캠퍼스의 심리학자인 잭 니츠키의 말이다. 니츠키는 인간의 뇌는 모든 부정적인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특히 그 불확실성이 부정적인 가설과 결합할수록 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고 여기에 집착하게 된다.

불확실성과의 싸움

불확실성은 심지어 그 불확실성 이후 나타날 최악의 결과보다도 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한다. 2008년 암간호학(Cancer Nursing)지에 실린 한 연구는 유방암 진단결과를 기

시간 동안 가장 높은 불안증 수치를 기록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경우 사람들은 이제 상황을 자신이 제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이는 어떤 면에서 불확실한 상황보다 더 쉬운 상황으로 여기게 됩니다.” 펜스테이트대학의 불안및우울증 연구소 소장인 미셸 뉴먼은 해석한다.

아주 잠깐 동안의 불확실성도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이 뉴스나 트위터에서 눈을 떼기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통 체증에 대한 한 연구는 운전자들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스트레스와 분노 수치가 높아짐을 보였다. 버스과 기차,

대기시간을 알려줄 때 사람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것을 보였다. 대기시간이 더 길어졌을 때 그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한, 사람들의 기분은 나아졌다.

불확실성이 주는 스트레스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더 나쁜 결과를 선택하기도 한다. “불안장애를 가진 이들은 자신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순히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이만의 말이다.

2011년 행동치료(Behavior Therapy)에 실린 한 연구는 도박실험에서 불안증이 있는 이

말한다. 이들은 이런 걱정이 불확실성 이후에 나타날 일들을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걱정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불안증을 가진 이들은 물론 다른 모든 이들에게 걱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노이만은 걱정을 많이 할수록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줄어들며 그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이 실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낮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4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neurologist and psychiatrist. Includes contact info: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Includes contact info: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제10차 디퍼런스 공개 세미나

You are not wrong. You are just Difference! 디퍼런스, 바로 당신이 남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2021년 9월 25일(토) 오후 2:00-4:00



Difference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만의 고유한 내면적 특성을 의미합니다. 디퍼런스는 기존의 심리도구와는 달리 사람의 사고하는 방식과 그 이유를 여러 측면에서 전인적으로 분석하는 도구로서 사람의 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인간 이해 도구입니다.

디퍼런스의 유익

- 디퍼런스를 알면...
-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낮은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 자신을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 이해심이 향상되어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자신에게 맞는 배우자, 진로 및 인생의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삶을 사는데 큰 도움을 얻습니다.

제10차 공개 세미나
일시: 2021년 9월 25일(토) 오후 2:00-4:00 (미국 서부 시간)
참여 방법: 온라인 실시간 zoom 화상 세미나
회의 ID: 852 9071 6995 암호: 261930
문의: 562)822-3078

*공개 세미나 참석자 중 초급 과정 등록하시는 분께는 수강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

(1면에서 계속)

첫째,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희망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에 대한 기독교인의 신뢰는 “악이 있을 때 선이 따를 것”이라는 성경적이지 않은 브로마이드로 뒤덮인 미국의 낙관주의보다 덜했다.

미국인들은 “모든 것은 이 유가 있다”고 믿으며 짧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은 항상 기쁨으로, 고통은 성화로 바뀔 것이라고 믿는다. 미국인들은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한다. “하나님이 범사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역사하시기를 줄을 우리가 아노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든 잘 될 것이라는 의미로 잘못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종말론적 차원에서 그렇게 실현된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완전한 기쁨과

공의를 살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제21:4, NASB).

하나님은 개인으로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확실하게 더 나아지는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때로는 악이 발생하고 수세기 동안 계속 발생한다. 때때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또한 목회자이자 작가인 팀 켈러가 관찰한 것처럼 고통이 “자연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성장이나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않는다.”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잠을 성이 없고 성실하게 대처해야 한다.” 2001년 가을에 몇 차례 동안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주일예배는 길고 느린 성화 과정에 대한 약속이 아니다.

실망스러운 희망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9.11을 기억에 어떻게 보존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는 오늘까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가 의미한 것의 일부는 “우리가 잃은 사람들과 공포 속에서 도운 평범한 미국인들의 영웅심을 절대 잊지 마세요”였다. 또 다른 부분은 복수였다. 2001년 9월 연설에서 부시는 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와 그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의 “분노” 속에서 조국이 찾은 “사명”에 결코 굴복하거나, 쉬거나, 뒤우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일부 기독교인을 포함해 너무 많은 미국인이 복수심에 불타는 방식으로 이 대응을 채택했다.

우리가 9.11이 벌어진 원인과 테러리스트들의 엄청난 잘못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옳았지만 어느 시점에서 해마다 그 분노를 연습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추종자들에게 명하신 정의, 사랑, 용서로 우리를 움직이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를 분노와 적개심과 원한으로 움직이게 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모든 고난

과 함께 한다(히12:15).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신학자 볼프(Miroslav Volf)가 주장한 것처럼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과 적개심을 극복하고 사랑 안에서 친교를 이루려는 열망으로” 기억하도록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

올해 9.11테러를 다시 기억하듯이 그 기억을 바꾸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2001년 우리가 원했던 화합과 부흥의 실마리를 찾기 시작하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

우리는 정치에서 더 평화롭고 신중해질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도 구원의 날”(약 4:8; 고후6:2)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전히 진정한 희망, 즉 역사적 미국의 낙관주의가 아니라 인내, 성품,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오는 더 큰 희망을 배울 수 있다.

복음화대회 개최 ...

(1면에서 계속)

양 선교사는 “일어나라 부흥을 위해!”(사60:1)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저는 이민자입니다”로 시작하며 “할렐루야대회 강사는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을 들었는데,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후 돌아와 한 것처럼 하겠다. 지난 44년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겠다”고 말했다.

10대 후반에 파라과이로 이민 간 양 선교사는 교육계에 몸담았던 아버지를 따라 파라과이 한국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며 평신도로 교회에 헌신하며 평신도로 교회를 섬기겠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기도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바꿔 파라과이 남침례교신학교를 가게 되고 현지인교회를 시무하다가 한국 총신대원(M. Div)에 유학하면서 총현교회 주일학교 사역자로 어린이 사역에 비전을 갖게 됐다.

양 선교사는 파라과이로 돌아와 빈민촌 어린이 사역을 시작하며 이들이 하나님

의 말씀으로 성장해 빈민국 파라과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됐다고 과정들을 설명했다.

어린이 대형집회를 해오다 2005년 집회를 2달 앞두고 어린이들이 탄 스쿨버스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2명이 현장에서 죽고 9명이 중상으로 입원하게 되면서 양 선교사의 ‘아리바’(일어나라) 사역은 큰 난관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청년운동도 하게 되는 기적을 가져오고 당시 영부인이 대회에 참석해 스피치를 하는 부흥의 기쁨을 주셨다.

둘째 날 양창근 선교사는 “놓지 말라, 부흥의 손을!”(행 3:6-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역은 계속 했지만 2005년 교통사고에 따른 고난으로 결국 안식년을 갖고 LA에 있는 풀러신학교로 유학 오게 됨으로 미션퍼펙티브와 연결돼 미주 각 도시를 다니며 선교간증을 하게 되고 사역의 범위가 확장됐다”고 말했다.

양 선교사는 국토횡단 마라톤 등 파라과이 사역을 이어갔으나 점차 선교팀이 줄어들고 동역자들도 줄어 현재는 2명의 동역자만 남았다며 로렘나루 아래서 엘리야 들었던 세미한 음성을 구한 결과 파라과이를 일으켜야 한다는 말씀(사60:10)을 받고 팬데믹 기간에 빈민촌 무료급식, 인디언 추장학교 구호식량키트 배부, 장애인 휠체어 제공 등의 사역을 하고 있다.

양창근 선교사는 “200년간 주저앉아 있는 파라과이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야 한다’”(행3:7)며 “기도의 손, 하나님을 찬미하는 손, 구제의 손을 놓지 말고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 모두 못자국난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 일으키실 때 손을 놓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함으로 영적회복과 부흥을 이루자”고 도전했다.

둘째 날은 부회장 김희복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및 합심기도 뉴욕영아트파운데이션, 대표기도 이만호 목사, 성경봉독 백달영 장로, 찬양 뉴욕호신장로교회성가대, 설교 양창근 선교사, 헌금투송 뉴욕크로마하

프렌즈, 헌금기도 권캐더린 목사, 특별찬양 뉴욕영아트파운데이션 이진수 대표, 광고 박시훈 목사, 회장 인사 및 감사패 전달(양창근 선교사, 김학진 목사), 기금전달 구제사역단체 대표 이종선 목사(주님의식탁선교회), 축도 김학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교협은 할렐루야대회를 시작하지 40년 만에 처음으로 현직 선교사를 강사로 초청했으며, 대회 마지막 날에는 선교후원금(5천 달러 +1천달러/아동선물)을 전달하는 이례적인 순서를 남기기도 했다.

뉴저지 호산나전도대회

“팬데믹, 노아에게 묻다”(히11:7)라는 주제로 지난 9월 10일 저녁 8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열린 첫날 대회에서 뉴저지교협 회장 이정환 목사(뉴저지순복음교회 담임)는 “기대할 것이 많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대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델타 변이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대회사를 전했다.

(6면으로 계속)



시론

이 붉은 바위그늘 아래로 들어오라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이 시대만큼 발전한 시대는 없었다. 굳이 석기시대, 청동기시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작금의 시대는 엄청난 문명발전을 이룬 범우주적 시대이다. 무엇보다 컴퓨터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일컬어지는 급속한 변화를 통해 미래사회를 세차게 끌어당겨놓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8세기의 1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변화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획기적인 인류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보다 ‘가상인간(假想人間)’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비대면 사회를 앞당긴 팬데믹의 영향으로 준비할 겨를도 없이 다가온 초월적우주의 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에 올라 타버리고 말았다.

메타라는 단어의 뜻인 가상(假像)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하듯 체온과 감정 교류하는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우주 너머에 있을 신비로하면서도 두렵기도 한 어떠한 공간 속에서 차가운 상대를 대하며 살아야 하는 시대가 이미 너무 가까이 와있는 것이다.

장작을 패서 군불 때며 따뜻하게 덥혀놓은 온돌방 아랫목은 불과 한 시대 만에 먼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이미 사람들은 손에 쥔 스마트폰으로 집안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어놓고 들어갈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며 살고 있다. ‘발전’이라는 말을 마치고도 전에 또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내는 급속한 변화의 물결은 무엇이든 순식간에 퇴물(退物)로 만들어버리거나, 존중받아야 할 인권(人權)마저도 경제력과 활동력 저하나 나이라는 숫자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쓸모없는 퇴물취급을 해버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그야말로 ‘길 잃고 갈 바를 몰라 울기 직전인 어린이’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외판 섬처럼 서있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영국의 모더니즘 시인 T.S. 엘리엇이 ‘황무지(荒蕪地, The Waste Land)’를 발표한 것이 약 100년 전인 1922년이였다. 엘리엇은 ‘시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한 문장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한 ‘황무지’를 세계자연환경보존연합(IUCN)에서는 2009년에 발표한 ‘황무지가 무엇인가?(What is a wilderness)’라는 보고서에서 ‘월형 그대로 보존된, 그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거친 자연 지대로, 인간이 제어하거나 도로·송유관 등 여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은 원생(原生)자연보호구역을 황무지라 한다’고 정의해놓았다.

전세계의 기상이변은 북극의 빙하가 아니더라도 LA에서도 이상고온이라든가 극심한 가뭄 또는 습도의 증가 같은 현상으로 체감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사회는 피부에 와 닿는 감촉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쾌적함을 잃어버렸다는 자괴감과 절망 때문에 가상의 공간, 메타버스 시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가상세계라는 새로운 방법으로도 벗어나보려는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 손이 닿지 않은 청정지역’이라는 ‘황무지’에 대한 전문기구의 해석이 더 마음에 와 닿는 이유는 탈(脫)성경적인 인본주의적 해석이라든가, 극히 개인적인 영적경험 또는 고착된 교리의 집단적 고집(?)으로 여기저기 순수한 신앙의 땅을 파헤쳐놓음으로써 더 이상 기독교가 청정신앙의 황무지가 아니라 황폐한 땅을 만들어버린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라는 가상의 미래로 가는 차에 올라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인 엘리엇은 ‘황무지’에서 죽음이나 절망만 던져준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인용하면서 소망의 희망한 빛을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찾아내기를 바라고 있다고 “이 붉은 바위 그늘로 들어오너라(Come in under the shadow of this red rock)”고 소리쳤다. 이 한 마디는 ‘황무지’를 쓸모없는 땅에서 ‘깨끗하고 가능성 가득한 땅’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라는 찬송가 가사를 연상시켜주는 이 한 줄이 ‘황무지’라는 시 전체에 흐르는 암울한 기운을 말끔히 걷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날 아무리 둘러봐도 딱히 의지할 곳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djlee7777@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3, July 10, and Nov 27.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674-7982, (323) 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Fax. (718) 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베이스사이드장로교회)



기회(ob portu)

얼마 전 어느 책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현대 항구가 있기 전의 배는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멀리 정박을 하고서는 밀물의 때를 기다려야했습니다. 이 상황을 라

틴어로 오브 포르투(ob portu)라고 불렀는데, 이는 항구 근처에 서있는 배가 밀물을 타고 항구로 갈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로 기회(opportunity)라는 말

은 원래 이 라틴어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그 밀물의 순간을 놓칠 경우 또 다른 밀물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밀물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 누구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전도서 3장 1, 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니...”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중에 누구에게나 삶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심을 때를 주셨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잘 타서 심는다면 그것에 따라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을 기회가 있을 때 심지 않는다면 그 삶은 정말 거둬 줄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때를 따라 심는다는 것을 예로 들면 학창 시절에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때임을 말하고, 청년 시절에는 공부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년이 되어 그가 일한 것에 따라 열매를 거두는 것은 당연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잘 몰라 시련을 낭비하고 때를 놓치고 장년이 되었다고 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날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그 답으로 전도서 3장 12절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

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선을 심는다면 앞날에 선을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나마 이것을 행할 수 있다면 우리들은 그것의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 시간을 낭비하여 기회를 잃었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아름다운 때를 지나고 있음을 감사하며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양수철 목사

(에버그린선교회 담임)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에 은평평화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한 미군병사의 동상이 있는데 6.25전쟁 때 9.28 서울수복작전에 참가했다가 녹번리 전투에서 전사하신 윌리엄 해밀턴 쇼우(William Hamilton Shaw) 미해군 대위의 동상입니다. 해밀턴 대위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1년에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던 윌리엄 쇼우 선교사님의 외아들이며, 그는 평양 외국인학교를 마친 후에 아버지의 모교인 오하리오 주의 웨슬리언 대학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 해군소위로 임관하여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해서 공을 세웠지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한국으로 와서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며 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를 했습니다.

훈장을 추서(追叙)를 했고 은평평화공원에 기념 동상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은 백인이면서도 왜 서울을 탈환하려고 재입대하면서까지 싸우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저지르는 불의와 싸우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지요. 시편 106편 3절을 보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뭐가 복이 있느냐?”고 반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분명히 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밀턴 대위의 송고한 삶에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켰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 그의 아들, 손자, 손녀를 통해서 혜택을 입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녕 우리 후손대에 가서라도 필경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 2의 이스라엘의 광복절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광복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부림절’인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은 날이고, 부림절은 페르시아에서 진멸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

당할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민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화위복으로 구원을 받은 날이 부림절이고, 제 2의 광복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야각 사람 함므라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라고 자세히 풀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각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15장 3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야각’을 내게로 끌어 오라 하였더니” 즉, ‘야각’은 ‘아말렉이란 나라의 왕’입니다. 그러므로,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출애굽기 17장 14-16절을 보니까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시고,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도 하

나에서 벌어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의 국제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연대를 따진다면 주전 2천년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약 주전 450년 전의 이야기니까 약 1500년 이상 존재했던 사람들이 아말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해있던 족속들이며, 출애굽기 17장 8절을 보니까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하셨는데, 르비딤은 ‘시내광야 서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 25-29절을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기를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말렉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무엘상 15장 7절을 보니까 “사울이 하월라에서부터 애굽 앞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라고 했는데, 하월라가 어디일까요? 창세기 2장 11절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찢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토록 미워하시니,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그들이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뒤에 공격하는 불의한 세력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모두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연약한 소녀들을 위안부라는 미명 아래 잡아가서 성노리개로 삼고, 힘없는 10대 소년들을 징병으로 잡아서 총알받이로 만든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또, 주일이었던 6월 25일 새벽, 선전포고도 없이 몰래 기습공격하면서 수많은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연약한 죽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공산당원들은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실제로는 사탄의 후손

9.28 서울수복기념일을 맞이하면서

에스더서 9장 22-28절

감명을 받은 미국의 교회가 기증한 대전의 목산 언덕에 기념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 예배당이 바로 지금 목원대학교 안에 있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학생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했겠습니까?

한편 해밀턴 대위의 아내인 후아니타 로빈슨(Juanita Robinson)은 비록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었지만 하버드대학교 박사과정을 마치고 남편이 생명을 바친 한국으로 들어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치면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젊은 여학생들이 후안타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았겠습니까?

또 해밀턴 대위의 아들도 하버드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에 와서 홀브라이드 장학사업을 펼치면서 서울대학교 법대교수로 재직했고, 해밀턴 대위의 손자는 연세대학교 의대에서 근무했고 손녀는 오산 공군기지에서 장교로 복무

들이 위기에서 광복을 받은 날입니다.

유월절은 창세기 1장 14절(모에딤)에서 하나님께서 제정 해주신 ‘여호와와 일곱 절기 중의 하나’입니다. 부림절은 ‘여호와와 절기들’ 중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부림절이 생겼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전 동중에 페르시아라는 강대한 제국이 있었는데, 그 제국을 다스리던 아하수에로왕,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부르지요. 그 나라에 하만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총리가 있었

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곧, 야각 사람 함므라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대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했는데 그 제비를 페르시아어로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살

님은 다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5장 18-19절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았지요. 그러자 도리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백성을 죽도록 방치하실 수가 없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모르드개와 에스더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불신자들도 잘 알만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지면관계상 생략)

그러면 도대체 이 아말렉이 누구일까요? 아말렉이란 이름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7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순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

과 10장 29절, 그리고 25장 18절에 언급한 하월라와 같은 땅이라면, 아말렉 사람들의 영토는 애굽에서 북아라비아를 포함하여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말렉이 1500년 이상 존재하던 족속들이고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했던 족속들이라면, 최소한 세상 역사에 한번이라도 등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란 이름은 세상 역사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말렉이란 이름의 뜻도 불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하시며 “내가 대대에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에서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이 많으시고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만큼은 그토록 미워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8절에 나오는데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9.28서울수복기념일이 다가오는데 이럴 때 우리는 해밀턴 대위처럼 불의를 보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특정 다수’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모서 5장 24절을 보면 “오직 정의를 몰 같이, 공의를 따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 어다”고 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정의와 공의를 몰에 비유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물은 그 어떠한 공간에도 침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요, 물은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불의한 세력이 점령하고 있는 그 어두운 곳에 들어가 불의를 파괴하고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9.28서울수복기념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불의의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excelbright@gmail.com

WITH 코로나 시대...

(2면에서 계속)

니츠키 역시 걱정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만약 당신이 하루에 6-7시간을 코로나바이러스를 걱정하는데 사용하면 당신의 뇌에는 이 걱정만을 위한 신경회로가 만들어질 겁니다.” 즉, 걱정은 더 많은 걱정을 낳는다는 것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

보를 계속 찾아다니는 일에도 단점이 있다. 2009년 BMC공중보건(Public Health)에 실린 한 연구는 사람은 제한된 양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으며, 따라서 너무 많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경우 혼란을 느끼고 더 큰 불확실성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였다.

“정보 과부하는 사람들의 정보처리 능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2008년 연구의 저자들은 암환자들이 암에

관한 정보를 찾아다니다가 결국 “좌절하고 혼란을 느끼게”된다는 것을 보였다.

코로나바이러스 시대에 노이만은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많은 정보들이 그럴듯한 추측, 또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이라고 지적한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들을 찾아다니는 이들은 더 많은 지식을 쌓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느끼고 두려워하게 된다고 그녀는 말한다.

그럼 이런 불확실성이 주는 악영향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노이만과 니츠키는 같은 대답을 한다. 바로, 지금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불확실성과 이에 의한 불안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니츠키는 말한다.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읽고 넷플릭스를 조금 보거나 전화로 친구와 대화를 하세요. 이런 행동들은 당신의 뇌가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노이만은 걱정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 나머지 시간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매일 저녁 평소 쓰지 않는 의자에 앉아 20분 동안 코로나바이러스 뉴스를 보며 마음껏 걱정을 하는 것이다.

“매일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침대, 휴식 공간이 아닌 곳이어야 합니

다.” 이는 당신의 걱정을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묶어둘 수 있게 만들어준다.

“언제나, 그리고 누구든 인생에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불확실성에 매달리는 것은 아니지요.” 머리속을 업무, 일상, 놀이, 불확실성과 무관한 다른 일들로 채우는 것은 불확실성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혼의 주인에 대한 고려

세상 사람들은 다음 세 가지에 대한 자량이 많을수록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무병장수, 입신양명, 자녀출세'이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한 가지가 없으면 통째로 어리석은 바보 인생이 된다고 경고를 던진다.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신 말씀에 그 교훈이 담겨 있다. '당신의 영혼의 주인'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한 사도도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한다. '네 영혼의 잘됨'이 전제되지 못하는 삶의 형통과 건강은 그 자체가 아둔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그를 좇던 많은 무리들의 마음에는 각자 원하는 소원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소원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것들이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들은 자신들의 먹고 마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예수님을 왕 삼고자 따랐던 것이다. 예수님이 베푸신 광야에

으로 점철되는 모습은 모세시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맥을 같이한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즉각 달려오는 핸디맨이나 알라딘의 마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그들의 종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의 기준에 부합되거나 도움이 되어야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겠다고 한다. 저들에게 믿음은 믿어주는 것이고 교회는 가주는 것이며, 헌신은 그저 마음 기쁜 봉사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 신앙에 자기 자신을 부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준에 신앙을 맞추는 것은 세속 종교인의 종교생활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예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너무 바쁘면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하기 어렵다고 한다. 힘들수록 교회 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는데 교회가 웬 말이나? 라고 항변한다면 그는 참 복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일이라면, 잠시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 와서 예배하며 자신의 삶과 영

주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 간증이 아무리 귀하여도 결국 나이가 들면 모두가 늙고 병들고 죽기 때문이다. 위암이라는 병을 고쳤다고 다른 부위에는 종양이 나타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고 여든 살을 살았다고 할 때에 42동안의 그의 삶에 질병하나 없을 수 있겠는가?

예전에 성도들에게 안경을 벗어던지고, 그 안경을 밟아 버리고는 이제 눈이 좋아졌다고 외치는 부흥강사가 있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지팡이를 버리고 꼳꼳하게 서서 한번 걸어보라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이가 들면 노안이 찾아오고 눈이 침침하여지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은가? 또 허리가 굽어지는 것은 자연스런 노화의 과정이지 않은가? 굳이 안경을 벗어야 될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적의 목적이 필요없고, 지팡이 짚는 노인의 연로함이 추하고 안타까운 이유도 없는 것이다. 예전에 마술사가 손가락 굽히기를 잘한다고, 묘기대행진에 나와 특별기술이

다. 생명과 삶의 기본적인 가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을 것인데, 그들의 삶의 정황들이 있었지만 이해로서는 설명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삶의 우선순위

이민자들의 삶에도 그런 요소들이 존재한다.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너무 허무하고 공허해지는 결과를 보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다. 이민 초기에 미주로 건너와 밤낮없이 '여봉남청'이라고 종일동안 여자는 봉제공장, 남자는 야간 청소업으로 그렇게 2-3개의 일터를 가지고서 죽도록 고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남들이 말하는 성공은 했고 성공을 자랑할 준비는 다 되었는데, 정작 그 순간 돌아본 삶의 주변이 너무 황폐해있더라는 것이다. 건강은 말 못할 정도로 나빠졌고, 기대했던 자녀들은 오히려 고통의 짐들이 되어졌고, 가족 간의 관계들도 파괴되어 인생을 헛되게 살았노라고, 탄식하고 원망하는 이들이 많더라는 것이다. 건강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는 어디에 세워진 무슨 교회이며 한국인 최초의 세례교인과 한국 최초의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하버에서 이희은

A: 한국의 선교는 2가지 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1)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한국에 들어온 것 2)한국인 최초의 교회가 선교사에 의한 것이 아닌 한국인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를 쓴 오덕교 교수의 책에 의하면 한국인을 위한 성경번역은 만주와 일본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만주에서는 존 로스(John Ross)와 존 맥킨타이어(John Mckintyre)가 조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이들은 만주지역을 탐색하다가 만주로 이주해오는 한국인들을 만났습니다. 존 로스는 1872년 요령성의 중시무도시인 심양에서 이용찬, 백흥준, 이성하, 김진기 등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으며 1876년 이용찬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를 한국기독교 최초의 세례교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존 로스는 이용찬, 백흥준, 서경조의 도움으로 1880년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 완료하였고 1887년에는 신약을 완역하여 출판하였습니다.

존 로스, 이수정이 첫 번역자, 첫 교회는 소래교회

일본에서는 1882년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일본에 와 있던 이수정에 의해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그는 일본인 농학자 쓰다켄 박사의 전도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에 1883년 4월에 세례를 받았고 미국 성경공회 총무 루미스의 권고로 한국어 성경번역작업을 시작하여 1884년 마가복음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들의 수고로 한국교회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자국어인 성경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한글성경을 가지고 장로교 선교사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한국교회는 외국선교사가 아닌 한국인에 의해 세워졌는데 만주에서 성경번역에 참여했고 성경을 파는 매서인으로 일하던 서상륜이 성경을 가지고 비밀리에 국경을 넘어 황해도 소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1883년 교회를 세움으로 소래교회는 한국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서상륜은 원래 양반으로 태어나 한문공부도 많이 했고 중국어도 잘해 중국을 다니며 장사를 하는 중에 장터푸스에 걸려 운퐁이 불령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미 기독교를 접한 이용찬이 그를 매킨타이어 선교사에게 안내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생명의 위급함에 처한 서상륜은 서양병원에서 선교사 헌터(Joseph M. Hunter) 의사가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심양에서 존 로스 선교사를 도와 한국 성경번역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번역한 서상륜은 또 하나의 사명을 갖고 자신이 번역한 복음서를 안고 압록강을 건너 고향 의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1883년 5월 16일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 송천리 소래마을에 초가집 예배당인 소래교회를 세웁니다.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가면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캠퍼스가 있는데, 그 캠퍼스의 생활관 뒤편에는 아늑한 한옥 기와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한옥 개인주택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를 복원해놓은 곳입니다. 이 후에도 한국교회에 중요한 교회가 3개가 더 있는데 인천 내리교회와 정동제일교회 그리고 새문안교회입니다.

안하는 날, 일 안해도 좋은 날 정도의 의미가 아니다. 안식하는 날,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재충전 하는 날, 한주간을 도끼 날을 새로 가는 날이다. 이날만이라도 허리를 풀고 여유를 가지면서 주님의 교회에서 머무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심을 생각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의 기초 가운데 살아가는

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삶의 시간들을 깊이 생각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것이 빼내어 버리면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회한 가득한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열심히 사는데, 실제 그 내면은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의 모습으로 가득하다면 그것만큼 소모적인 인생을 사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광야 같은 세상, 잠시 멈추는 지혜

- 참된 자랑, 삶의 우선순위, 교회와 예배

서 행하셨던 기적만 계속 행하여 주셔도, 자신들은 농사짓거나 일할 필요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 분명해지자, 예수님을 떠나버렸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좇았지만 제자의 자리에 들지 못하는 그저 무리(Just gathering)의 삶을 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무리들처럼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좇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선생님의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신앙을 가지는 이들이 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자신은 간데없고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명,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에 초점 맞추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이 존재하는 삶의 감각과 기쁨을 누리는 그들이 바로 참된 제자들인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목적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빵을 구하던 저들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통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만을 바라보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혼을 돌아보아야 한다. 만일 한결같이 계속 그렇게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일을 하다보면 나중에 너무 늦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생명과 영혼, 예수님

이 땅에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영혼을 손해 보면서까지 할 일은 없다. 모든 노력과 수고가 모두 생명과 영혼이 잘되는데 초점이 맞춰있기에 그러하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는 기적들을 행하셨다. 예를 들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며, 앓은뱅이를 일으키시며, 38년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다. 게다가 때로는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잔치집의 낙망할 분위기도 더 큰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하셨다. 그러나 이모든 기적의 현장들은 결코 이 땅의 삶의 질에 대한 조금 더 나은 진보만을 위해 하신 것은 아니었다.

오직 예수님의 초점은 한가지였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다. 영원한 것을 불멸도록 하는 통로, 도구로 기적의 현장들을 잠시 사용하신 것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삶의 모든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왜 그러한지는 조금만 생각을 이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라고 자랑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빨이 황금이로 변하든 그렇지 않던 음식만 잘 씹어 삼킬 수 있으면 되지 않는가?

참된 성도의 강조점

참된 성도는 건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던 그렇지 않던 예수 믿고 천국가는 것을 확신하며 주님 주신 생명의 시간동안 주님 맡겨주신 교회와 복음을 위해 최선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생은 죄를 씻고 독특한 존귀함과 가치를 드러낼 수 있다.

인도에 가보면 특히 담장들이나 철조망이 많은 것을 본다. 그리고 담장을 사이에 두고 너무 많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목격한다. 담장 안 호텔이나 유명대학이나 관공서는 대리석과 황금빛 장식의 화려함이 대단하다. 그러나 담장 담장을 넘어서면 구걸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본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구걸을 더 잘 하도록 하기위해서 스스로 신체를 훼손하여 더 불쌍히 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아니러니한 상황이다. 살기위해 구걸을 하는데,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체를 스스로 훼손하여 생명을 보존하려 하더니 이해하기가 어렵

고 행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였는데, 외려 앞뒤 돌아보지 않고 너무 열심히 살았던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공허와 허무함으로 매조지[일의 끝을 단단히 단속해 마무리한다는 의미: 편집자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하게 되더라는 것이다. 70-80년대 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고름처럼 배집고 흘러나오는 작금의 이야기들이다. 모세시대에 광야를 지나 백성들이나, 초기 이민자들이나, 지금의 세대나 모두가 동일한 인생의 근본 지혜를 구하지 못하면 시대와 환경을 떠나 허무와 공허 속에 삶이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회에 멈추어 생각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대로 살면 잘 사는 것인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질 때 후회와 한숨으로 점철된 그런 삶은 아닐까? 멈추어 생각해보아야 한다. 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등 앞에서 생각을 한다. 파란불에 차가 달려간다. 그러나 빨간 불에는 차가 멈추어선다. 어떤 대단한 차도 이 규정에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규칙은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달려가지만 날은 무슨 날인가? 주님의 날, 안식일이다. 세상의 모든 수고를 잠시 멈추는 날이다. 그저 일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착각(錯覺)

사람은 변할까? 혹은 변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죄를 지을 수는 있었으나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죄의 삶이 사망이라고 하 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스스로 지은 죄를 해결하고 창조되었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누군가가 어찌 면 단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 까닭이다.

성경은 동서고금을 망라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천명한다. 죄인에서 자력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인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은 결코 변하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변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 그 중의 하나가 교만(驕慢)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몇 분도 살아남을 수 없는 철저하게 무력한 존재이면서도 하늘을 향해 샅대질을 하기 일쑤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는 만용(蠻勇)은 무지와 교만의 극치다. 나

자신을 알라는 철학자의 지적마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미련이다. 하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자신을 어찌 알겠 나마는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먹고 스스로 말할 정도만 되어도 자아(自我)가 싹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다. 자신을 알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착각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땅에 온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성도(聖徒)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도 마귀도 사람도 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알아야 착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

성도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죄

인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조차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비밀은 죽었다 다시 사는 것뿐이기에 이를 중생(重生) 즉 거듭남이라 말한다. 죄의 삶으로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뿐이다. 변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였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에서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고 사람 즉 바울이 변한 것은 아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바울보다 더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솔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며 열세권의 서신서를 썼을지라도 그가 변한 것은 아니었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이라는 말을 정치인이 모를 리는 것이 없을 것이다. 정치는 곧 권력이기에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

는 이 말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 커질수록 이 권불십년이 자기에게는 해 당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듯하다.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년을 보면서 충분히 자각할 만도 하건만 불행 부당하게 군림하려는 위정자(爲政者)들이 끊이지 않는다. 권력이 커지면 보이는 것도 모르는 것도 없는지 모르지만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것들을 왜 착각하는지 그 속을 알 수가 없다.

위정자들이 일으키는 착각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국민에게 불행한 결과가 된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대선이 다가오 있다. 내가 혹은 나만이 적임자라 자처하는 후보들이 수십 명에 이른다. 그러기에 걱정이 앞선다. 흑세무민(感世誼民)하며 자신까지 속이는 후보가 권력을 잡으면 이나라의 대한민국은 거덜 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나라 빛이 늘어 나가나 말거나 선심으로 표를 얻겠다는 알팍한 술수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가담치 않은 공약(空約)에 속지도 말고 잘 생겨서 지지한다는 허탕에서 정신을 차려야 한다.

착각하지 않을 바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뿐이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착각하지 말고 바로 알아야 한다. 그러면 장미빛 청사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도우시지 않으면 허사일 뿐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라는 것은 결코 착각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친히 이 나라를 도우시며 이 국민을 이끄실 것을 알기 때문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텍사스주, 소셜미디어 통제법에 주지사 서명

미국 보수의 아성인 텍사스주가 투표권 제한법,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에 이어 소셜미디어 통제법을 도입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10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이 보수파를 정치적으로 검열하고 있다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에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소셜미디어 업체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극단적인 이념을 전파하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게시글이 올라오면 계정 폐쇄 또는 일시 중단, 삭제, 경고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통제법은 어떤 정치적 견해를 담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 기업이 이를 자체적으로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소셜미디어가 온라인 활동에 대해 불공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할 경우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 역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애벗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통제법에 대해 “빅테크의 정치 검열에 대항하는 조치”라며 “보수적인 생각과 가치를 침묵시키려는 일부 소셜미디어의 위험한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셜미디어 업계와 단체들은 수정헌법에 따른 사기업의 의사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보수적인 주에서 소셜미디어를 통제하려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만 지난 3월 스펜서 콕스 유타 주지사는 의회에서 서명한 소셜미디어 통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지난 5월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소셜미디어 회사들에 대해 금융 제재를 가하는 비슷한 법안에 서명했지만 한달 뒤인 6월 연방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됐다. 수정헌법 제1조 전문자들은 텍사스주의 법안 또한 비슷한 운명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계 미국인 루시 고 (53·한국명 고혜란·사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제9연방고등법원 판사에 내정됐다.

백악관은 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 판사를 지명한 사실을 전하며 “연방고법 판사로 재직하게 될 첫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했다. 제9연방고법원은 캘리포니아, 워싱턴,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알래스카, 하와이 등 서부 지역을 관할한다.

상원 인준을 남겨둔 고 판사는 2010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판사에 임명된 한국계 첫 연방지법 판사이기도 하다. 그는 2016년 조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제9연방고법 판사로 지명받았지만 공화당이 우세했던 상원을 통과하지 못했다.

워싱턴에서 태어난 고 판사는 하버드대 로스쿨 졸업 후 1993년 상원 법사위원회와 법무부를 거쳐 연방검사 등으로 7년간 재직했다. 이후 로펌으로 옮겼다가 2008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주지사의 지명으로 샌타클레라 카운티 법원 판사에 임명됐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후보 측은 그를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 남편은 마리아노 플로렌티노 쿠엘라 캘리포니아주 대법관이다.



귀국 못하는 북한 해외노동자에...

코로나19로 국경이 차단되면서 귀국하지 못한 북한의 해외 노동자에게 기독교 사역자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순교자의소리(VOM)는 현장 사역자 네트워크 등을 통해 중국, 러시아, 몽골과 동남아시아, 중동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10만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고, 이들은 코로나19로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고립된 상태라고 8일 밝혔다.

한국VOM 현숙 폴리 대표는 “북한 노동자들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고, 자신의 미래와 가족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



기독교 사역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한국VOM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적인 방법도 제시했다. 지역마다 인쇄된 성경이나 전자 성경, 애플리케이션, 동영상 등 선호하는 성경의 형태가 제각각이라 맞춤형 성경 보급이 필요하다고.

또 북한 노동자를 만날 때는 한국인 선교사보다 현지 기독교인이 낫다. 북한 노동자들은 해외로 나가기 전 한국 사람과의 접촉을 경계하라는 교육을 받은 만큼 한국인 선교사와의 만남 자체를 경계할 수 있다. 한국VOM도 현지 기독교인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에게 현재까지 4500개 이상의 전자 성경과 인쇄된 성경 등을 배포해 왔다. 한국VOM은 보안을 위해 지역별로 보급된 성경의 형태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성경은 기독교 용어 대신 북한의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바꿨다. 한국VOM에 따르면 복음을 접한 북한 노동자들은 보통 ‘예수님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하나님께 충효일심’ 등 북한의 김씨 일가에 사용하던 표현을 썼다.

접촉이 어려워 별도의 양육 시간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성경 보급만으로도 결실을 맺었다. 한국VOM은 성경을 받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최근 보내온 감사편지도 공개했다.

한 북한 노동자는 편지에서 요한복음 6장 26-29절 말씀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없어지지 않는 양식(양식)을 얻으며 그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다”고 적었다.

“백신 미접종자, 접종자보다 사망률 11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접종자보다 사망할 위험이 11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BS는 11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발병·사망률 주간 보고서(MMWR)’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고 밝혔다. MMWR에는 지난 4월 4일부터 7월 17일까지 미국 13개 주를 대상으로 60만건의 확진 사례를 조사·분석해 작성한 논문이 실렸다.

로셀 웰렌스키 CDC 국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논문의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델타 변이가 국내 지배종으로 확산한 지난 2개월간 확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4.5배, 입원 확률은 10배, 사망 확률은 11배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MMWR에 발표된 또 다른 2건의 연구는 고령자들에 대한 백신 예방효과가 낮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보훈 의료시설(VAMC) 5곳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백신의 입원 예방효과가 18-64세 연령대는 95%였지만, 65세 이상은 80%로 낮아져 고령자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병원과 진료 클리닉으로 구성된 단체인 ‘비전 네트워크’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비전 네트워크는 백신의 입원 예방 효과가 75세 미만 연령대는 89%, 75세 이상은 76% 대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종전 이후 첫 9·11 추모식

11일 오전 8시46분 미국 전역에 침묵을 알리는 종이 다시 울렸다. 정확히 20년 전 세계무역센터(WTC) 쌍둥이 빌딩에 여객기가 처음 충돌했던 시간.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이 시작됐다. 이날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 후 첫 추모식이란 점이 특별했다.

조 바이든,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이 그라운드제로 행사장 앞마당에 나란히 서서 고개를 숙였다. 9·11테러 당시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을 시작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주 생크스빌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미국이 시험대에 선 비탄의 날에 수백만 국민이 본능적으로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대의를 향해 나아갔다. 테러 이후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며 단합한 국민을 이끌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불일치가 언쟁으로, 언쟁은 충돌로 변하고 있고, 정치는 분노와 공포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내의 극단주의자들은 인명 경시와 같은 더러운 정신의 산물이고, 이에 맞서는 건 우리의 계속된 의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리 촬영한 영상에서 “9·11테러가 벌어진 이후 우리 곳곳에서 영웅적 행위를 보았고 국가통합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다.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미국이 최고에 있게 하는 것이 단결”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영상 메시지를 내고 “전쟁 20주년을 승리와 영광과 힘의 해여야 했다. 그러나 바이든과 그의 서툰 정부는 패배 속에 항복했다”며 “미국은 무능이 일으킨 망신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음화대회 개최 ...

(3면에서 계속)

이정환 목사는 “인류 최초의 펜데믹을 만난 노아가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에 펜데믹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었다”며 “변화와 결단의 시대에 하나님만이 소망이심을 믿는 창조적인 소수의 사람들로 하나님만이 우리 삶과 전 인격에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자”고 말하고 개회선언을 했다.

예배는 부회장 고훈승 목사 사회로 러브뉴저지찬양팀의 경배와 찬양후, 개회선언, 개회무(정태희선교무용단)로 이어졌으며

이의철 목사(뉴저지목사회 회장) 기도,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찬양후 진유철 목사가 설교했다.

진유철 목사는 “그러나 노아는”(창6:5-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복음의 기본 진리를 강조하며 펜데믹 시대에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의 소망을 잃지 않았던 노아의 잠된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강조했다.

진 목사는 35년전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파과과이 선교사로 파송 받아 16년간 사역하다가 조용기 목사의 명으로 브라질 쌍파울로 순복음교회에서 4년6개월을 사역하고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후임으로 나성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진유철 목사는 언어, 기후, 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남미(파라과이, 브라질) 선교의 간증을 나누고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는 동일하다는 것”이라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성경에서 언약, 은혜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곳이 노아이야기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차지던 노아이야기지만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게 해준다”고 강조했다.

진 목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타인을 공격하고 증오하게 된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집중한다면 펜데믹을 이기는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노아시대에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예비하셨다. 앞으로 다가올 전 인류적인 최대의 사건은 예수님 재림이고 개인적으로 다가올 최대 사건은 죽음이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도전했다.

이어 장학범 목사가 합심기도(펜데믹 시대 속에서 교회들의 사명을 위해-예배회복, 영육간의 강건함, 복음전도, 미국 땅,

빛과 소금의 사명)를 인도했으며 이상민 목사의 봉헌기도 이강우 집사 봉헌연주, 광고 김동권 목사(총무), 축도 장동신 목사(직전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둘째 날은 김동권 목사 사회로 경배와찬양 러브뉴저지찬양팀, 기도 정일권 장로, 성경봉독 김건일 장로, 찬양 뉴저지여성목회합창단, 말씀 진유철 목사, 합심기도 송호민 목사(펜데믹시대 속에서 목회자들의 영성회복을 위해), 봉헌기도 임원진 목사, 봉헌찬양 뉴욕크로마하프연주단, 고아고 최재형 목사, 축도 허상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마지막 날은 이정환 목사 사회로 경배와찬양 뉴저지연합교

회합찬양, 기도 유귀철 장로, 성경봉독 최재형 목사, 찬양 뉴저지순복음교회 호산나성가대, 말씀 진유철 목사, 합심기도 최다니엘 사관(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위해) 백행두 목사(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봉헌기도 원도연 목사, 봉헌찬양 정태희선교무용단, 광고 김동권 목사, 축도 양준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목회자세미나는 13일 오전 10시 뉴저지순복음교회에서 이정한 목사 사회로 열렸으며 강사 진유철 목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창41:16)라는 제목으로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30. 노형달(?-1932)

노형달은 한국에서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에게서 복음을 전해 받고 10여 년간 양주와 회양과 독바위와 기타 여러 곳에서 교회를 맡아 전도사업을 하였다. 4년간의 노동 계약기간 높은 보수와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거짓광고에 1905년 4월 4일에 멕시코의 남부 살리나크루스 항구로 떠나는 영국 소속 '일포드' 화물선에는 전여 명이 승선하였다. 이 가운데 노형달이 있었다. 그해 5월 8일에 멕시코에 도착한 그는 메리다 시내에서 매우 가까운 곳의 초초란 농장에 들어갔다.

지정된 곳에서 거주해야 하고, 다른 농장에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고, 동포를 만나면 허락 없이 만났다고 가두는 등 완전히 속박을 당하였고, 아침에 조금만 늦게 일어나게 되면 잡아다 구타했다. 혹사를 당하면서도 살인적인 더위에 주일에도 일에만 열중할 터에 노형달에게 신앙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런데 한국에서 기독교인이었던 최춘택이 1906년 8월에 믿음을 잃고 졸고 있던 김제선을 깨웠고, 때마침 박이성과 이삼봉 등 12, 13세 된 두 어린이가 땅에 엎어져 무수하게 난타를 당하여 유혈이 낭자할때도 주일을 지키겠다고 하여 주일을 지키 수 있었다.

김제선이 앞장선 가운데 최춘택과 함께 노형달이 전도하였다. 하루에 두, 세 시간만 눈을 붙이고, 밤잠을 자지 않고 밤중에 다른 농장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전도하다가 새벽이 되면 자기 농장으로 돌아와서 새벽 4시 반에 심장의 점고에 참석하였다. 이렇게 꾸준히 몇 달 동안 전도하여 김윤원, 이근영, 김성민 등 초초란 농장에 있는 동포는 거의 다 믿었고, 다른 농장에서도 믿는 이가 생겨나 교인이 17, 8명에 이르렀다.

1908년 7월에 김제선이 숙천 80페소를 지불하고 농장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 초초란 농장을 떠났을 때 노형달이 최춘택과 함께 초초란 농장 교회를 섬겼을 것이다. 본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쓴 돈이 530여 달러나 되었으니 월급을 모두 현금할 정도로 은 교인이 열십이었다.

김제선이 1908년 7월에 64번가 428호에 집을 마련하고 생업을 이으면서 그해 10월 5일에 그의 집에서 예배드린 후 전도회를 조직하였고, 주일이면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렸다. 자유의 몸이 된 김윤원, 황영식, 방경일, 신광희, 정춘식, 이근영 그리고 조병하 등도 함께 했다. 이후 김제선이 각 농장을 다니며 복음을 열심히 전도하였는데 초초란 농장의 노형달도 함께 했을 것 같다. 이로써 1908년 말에는 교인이 100여 명이 되었다.

1909년부터 농우들이 한인 노동자에게 외출허가를 주면서 노형달이 메리다 한인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다. 그해 초에 예배에 참석하는 수가 70명이 되었고, 3월에는 교인이 300여 명으로 늘어나 그해 4월에 메리다 시내에 한집을 세내어 예배당을 세웠다.

한인 감리교회와 관련 없이 독립교회 조직, 전도사 사역 오후기나 지방회 평의원으로 활동 1915년 다시 메리다로

유키탄의 한인 노동자가 4년간의 계약이 끝나면서 1909년 5월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근영이 상하의 국민회에 한인의 생존과 보호를 요청하면서 여비조로 50페소를 보냈는데 국민회는 상하의 황사용과 나성의 방화중을 견목위원으로 파송했고, 상하한인감리교회 청년회는 그들의 여비로 6달러 50센트를 지원하였다.

그달 9일에 메리다에서 16개 농장에서 온 총대 70여 명이 국민회 메리다 지방회를 결성하였고, 지방회 주수는 메리다 64번가 428호였다. 장립회원은 멕시코 한인 노동자의 삼분의 일인 314명이었다. 이때 김제선은 구제원에 선정되었다. 기타 임원에는 회장에 이근영, 부회장에 방경일, 총무 및 재무에 김윤원, 서기에 신광희, 학무원에 황영수, 법무원에 조병하 그리고 평의원에 김구현, 최정식, 이근하, 이국빈, 유진태, 김대선, 김성민, 김태진, 박선일이었다. 그런데 노형달의 이름은 임원 명단에서 찾을 수 없다.

메리다 지방회가 결성된 지 3일이 되던 1909년 5월 12일에 지방회 회관 내에 메리다 한인감리교회를 설립했다. 그해 8월에 메리다 교회직원을 선출할 때 교사에 김제선을 선임했다. 그 외 교회 직원으로 집사에 김윤원, 김성민 그리고 이근영을 선출했다. 교회 직원명단에서도 노형달의 이름은 없었다.

방화중은 학교 등록을 위해 1909년

6월에 나성으로 돌아갔지만 황사용은 이듬해 1월까지 10개월 동안 한인 노동자의 법적 사항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키탄 인근과 캄페체 주의 농장들을 방문하면서 전도하였으니 메리다 교회에 큰 공적을 끼쳤다. 상하 한인감리교회는 메리다 교회와 계속 밀접한 관련을 유지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헌금했다.

그런데 노형달은 감리교회와 관련을 가지지 않은 독립교회를 조직하여 한인들을 섬겼다. 서양교회의 후원이 없이 한인들의 독립교회이었으므로 전도사의 월봉이 없었다. 그는 단순히 의무적 봉사를 하였다. 그해 멕시코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한인들이 메리다를 떠나면서 그의 교회도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1909년 11월에 메리다 노하칼 경찰소 사찰이었던 23세의 박행기가 별세하였고, 다음달 5월에는 한성 남서풍동에서 태어난 43세의 이준화도 세상을 떠나 별세의 슬픔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달에 이곳의 황면주가 그전의 과실을 회개하고 단체의 회원이 되기를 원하여 호유하고 동정을 보더니 얼마 못되어 동포 50인을 "유인하여 불의한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메리다 지방회는 한인 경찰을 책정하여 황면주를 잡아 심문하였는데 그가 한인 내정을 정탐하는 일본 사람과 잠통한 사건이 탄로 났다. 그달

한, 방영화, 하오성, 대의원에 서병두, 유진태가 있었다. 노형달은 이곳에서 독립교회를 조직했다. 이들 지방회 임원 중에는 독립교회에 참석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듬해인 1912년 6월 오후기나 지방회는 구제원 노형달이 구제원을 사면하여 변용행을 선정했다. 이날 총무 이환영도 사면하여 신봉권으로, 평의원 이흥식도 사면하여 김용수로 선출했다. 2년 후인 1914년 5월에 오후기나 지방회가 회무처리에 편리하기를 위하여 평의원 7인을 선정했는데 이기중, 고희민, 김성민, 강홍신, 이원석, 고희명과 함께 노형달이 선임되었다. 평의원으로 선임될 정도로 그가 대표성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된다.

그해 7월에 노형달은 2원 50전의 국민 의무금을 냈다. 이날 낸 명단은 장봉오, 서춘동, 방경일, 김봉룡, 엄주환, 김기수, 김명수, 이음섭, 이기중, 고명국, 서문경, 류순명, 문치호, 이광선, 김성식, 정자용, 이병권, 조여삼, 김광윤, 김철명, 강문형, 이병하, 이원석, 김성민, 김치운, 변윤행, 황인선, 김명치, 서병두, 최동완, 김기철, 고의민, 이재경, 서병학, 김영화, 서원식, 김흥서, 이병현, 서윤, 이종태, 김봉섭, 김성택, 김덕수, 박용규, 최대현, 김영수, 김창현, 박순학, 윤은섭, 양명관, 강홍식, 이상익, 이흥식, 문석근, 박운경, 장영식 그리고 이종현이었다. 이들 중에서 그의 독립

호, 이재성, 윤기서, 이봉춘, 안장식, 최덕수, 박순학, 김승민, 진광의, 양재은, 안인용, 김성진, 최문순, 한국삼, 구여성, 양성일, 오원근, 김대복, 김성문, 배기화, 장석환, 정관수, 안동식, 김순여, 차용환, 박창식, 김근필, 홍익삼, 이돈의, 이승준, 오태환, 이기중, 최인규, 김승서, 김용수, 박일로, 이상운, 박상호, 김삼복, 김준일, 하승천, 류인택, 김학철, 김영화, 이흥순, 권덕선, 김태식, 서문경, 고명국, 이우식, 최륜, 이원순, 라영원, 이돈하, 강홍식, 류진태, 최영진, 박두현, 박덕업, 한명학, 이희택, 배태관, 김익석, 권치선, 박승준, 도창식, 김동수, 김상준, 참순재, 김덕순, 김승호, 이지운, 박춘삼, 양기서, 장석호, 김천문, 박순남, 강재봉, 김경식, 이상여, 조태화, 조길남, 박근배, 최춘택, 김영성 부인, 서문경 부인, 박경일 부인 권덕순 부인, 장윤익, 김창영, 최성호, 김광호, 김중완, 이순경, 변윤행, 서병두, 한종원이 있었다. 이 명단에서 독립교회 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해 4월에 유키탄 진성학교에 5원을 기부했고, 그해 11월에는 국민 의무금을 냈고, 이듬 해 8월에도 국민의 의무금을 냈으며, 1923년 5월에는 국민대표회 대표 경비를 후원했다.

1923년 5월 3일자 신한민보가 '메리다 한인교회라는 제하에서 "멕시코 메리다에 있는 한인교회는 연례로 재미있게 치러져 오던 바 그 나라 혁명당을 인하여 재정상 공황으로 폐지되다시피 되었더니 최근에 와서는 당시 동포들이 이를 부흥시키려고 극력하는 고로 불완전에 이 교회가 다시 세계 될 희망이 있다하였다'라고 적었다. 이 교회가 메리다 한인감리교회로 보이나 노형달의 독립교회도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다 싶다. 그해 11월에 지방회장 김동순이 소집한 메리다 지방회에서 명년도 임원을 선출하였는데 학무에 노형달이 선임되었고, 내지 수재 구제금을 낸 다음 달인 이듬해 2월에 학무였던 노형달이 사임을 청원하였다. 1927년에 인구세를 냈고, 1932년에도 인구세와 더불어 재만 동포 구제금도 냈다.

신한민보는 1932년 12월 15일자 노형달은 지난 28년간 한인(독립)교회에서 전도사로 복음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그가 병을 얻어 입원 치료하던 3월까지라고 본다. 두 달 후 5월에 모인 메리다 지방회는 치료비를 모금하여 부회장 노형달을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6개월 후인 11월 20일 오전 9시에 하남의 부름을 받았다. 그는 별세 전 3일에 지방회장 유진태와 서기 이기삼에게 "누라도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려서 도리어 미안한 마음이 많이며, 또한 세상을 이별할 날이 불원한 즉 죽은 후에 감당한 부비를 사랑하는 형제에게까지 말고 그전 북미실업주식회사에 주금 낸 것이 시리금을 병하여 묵화로 7백원인데... 1.훈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 총회장 백일규 씨께 교섭하여 메리다 지방회에서 연중 총회에 납부될 돈 중에서 환전하여 나의 감당한 부비를 보태어 쓰게 하소서" 하였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어예배: 오후 2:00 영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05: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 Tel: (213)481-7779 / facebook.com/jeres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1:20 영어(영소:K/O, 침례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전 2:30 Tel: (213)559-7728 (전화 북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택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p>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선인영예배: 오전 9:15, 11:30 일어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h@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엘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 북쪽을 감리교회와 동맹목회) 성서사역 (영-국) 오인어, 사-오류스, 사-오류스 사역대상: 1. 여학생사역 2. 교회 청년사역 3. 목회상담 4. 가정사역 5. 영성사역 6.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새벽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8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p>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ion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stoneivm.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 오전 5:30(월-토)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임하여'에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언제 에덴동산(천국)에 들어가는가? (4)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교회, GPS센터 대표)

2. 다니엘 계시록을 읽으면 마지막 때가 보인다

2)70이레
①70이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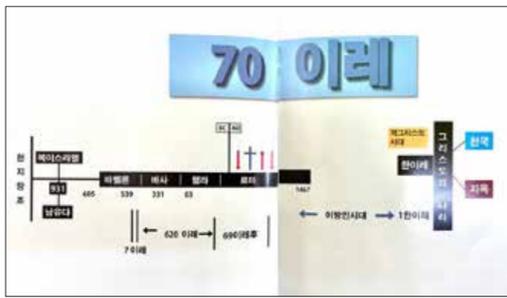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단9:25).

7이레의 시작은 솔로몬 왕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어 받아 국민들은 솔로몬 왕 때 많은 세금과 공역이 심하였을 때 이런 왕에게 세금을 감해주고 공역도 줄여달라고 청원하며 그 르호보암은 나이가 많이 든 단체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왕에게 대답하기를 세금을 감해주고 공역을 줄여줘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르호보암은 다시 젊은 단체에게 물어보니 그 청년단체들은 말하기를 ‘왕이여 그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주인은 왕이오니 더 세금을 올리고 더 공역을

을 포로로 잡아가고 BC 597년에는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금, 은, 구리를 다 전리품으로 바벨론군대가 가져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의 회개소리를 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 45장과 70년이 되면(렘 25:11) 고레스왕(사45)을 통해 회복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단9:25).

62이레 70이레가 끝나고 62이레가 시작되는데 BC 331년에 헬라에 멸망하고 헬라인들은 경악스런 일들을 그들이 행하므로 이스라엘인들은 게릴라 전쟁으로 헬라를 괴롭히므로 헬라는 BC 167년에 자치 정부로 인하여 있다가 BC 67년에 철과 같은 강한 나라(단2장, 7장, 9장) 강한 로마제국이 AD 1467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여기서 62이레는 70이레가 끝나는데부터 AD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30세에(눅3:23) 세례 받으신 거기까지는 62이레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같이 7이레 + 62이레는 69이레 예수님이 기름 부은 자로 (세례) 받으신 날입니다.

③69이레 후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 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단9:26).

예수님이 세례(기름 부음 받으심) 받으신 때가 69이레이며 그 후 예수님은 빌라도의 심판에 유대인들에 의해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이혼가정 자녀회복(7) 부모의 재정에 협조하기

질문: 아버지께 친구들과 같은 새 게임을 사달라고 했더니 ‘양육비를 줬으니 엄마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힘들게 일하시는 엄마에게 언제 말할까 망설이던 어느 날 엄마가 내방으로 오시더니, ‘아무래도 집에서 이사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슬프게 말하셨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를 도울 길이 없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됐지요.

기독교인의 바른 물질관 갖게 해야

답변:부모의 이혼이후 자녀들 또한 물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갖게 되면서 어떻게 부모를 도와야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돈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나이에 맞게 설명해주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따로 살게 돼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과 청구서들을 보여주면서 가정에 필요한 지출을 알게 하고 양육비만 그들이 사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집세며, 자동차비, 개솔린비 등이 포함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후 절약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를 나누어 봅니다. 예산 세우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등에 대해 의논할 때 자녀들은 부모의 재정 부담에 뭐가 한다는 뿌듯한 마음이 들 수 있으며 이런 대화의 시간은 자녀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으로 재정과 관련하여 한부모들이 실수할 수 있는 2가지 지를 들어보지요. 첫째는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를 속이며 가진 것 이상 지출하는 것입니다. 곧 본인과 자녀에 대한 연민 혹은 보상심리에서 과소비를 하는 것으로 이는 자녀들로 무절제한 소비성향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두려움 속에 마치 돈의 노예인양 못쓰는 것입니다. 이는 돈으로 힘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 자녀들이 자라게 된다면 물질에 대해 인색한 성품을 가질 수 있고 돈이 그들의 인생전체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자녀 재정교육으로는 용돈을 주어서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갖게 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이 미래에 큰 자산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해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줄 수 있는 친지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어린 심령들이 가진 재정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대한 이해를 표시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는 단지 돈의 청지기, 관리직임을 맡게 주십시오. 아울러 십일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성경적인 원리 곧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연령에 적합한 대화로 나누어 보십시오.

다음으로 성경말씀 중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왕하4:1-7). 한 과부가 엘리사에게 와서 ‘남편이 죽었는데 빚장이가 두아들을 노예로 삼겠다’고 하자 ‘집에 무엇이 있소?’ 기름 한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하자 ‘이웃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와서 기름을 부어 채워지는 대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말씀과 같이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실 거라는 것을 믿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 마지막 한이레 전에 전할 7복: ①생명나무 열매 먹기 ②둘째 사망 해 받지 않기 ③만나 먹기 ④새벽별 받기 ⑤생명록에 이름 지우지 않기 ⑥하나님의 기둥 되기 ⑦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기

늘려 강건하게 하십시오’ 하고 말할 때 르호보암은 젊은 단체들의 말을 듣고 더욱 세금을 올리고 공역이 더 심하게 하니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북 이스라엘을 세우고 지도자를 솔로몬 왕 때 반역하여 애굽으로 피신했던 여로보암이 와서 북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0지파는 하나님을 떠나고 산당을 세우고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 때 하나님은 소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선지자를 보내어 회개하라 했지만 그들은 회개치 않아 BC 722년에 망하였습니다.

남 유다 역시 베냐민지파와 유다지파로 이루어진 남 유다는 너무나 잘 살고 많은 우상을 섬기며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이스라엘들을 향해 요엘, 미가, 오바댜,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치 않으므로 BC 605년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많은 사람들

는 말씀대로 BC 539년에 다니엘 2장 7장 말씀대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고레스왕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BC 538년에 지도자 스룹바벨, 학개 선지자를 인솔하여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으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인들이 괴롭혀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 2차 포로귀환 때 고레스왕의 칙령으로 성중건령을 내렸다.

제2차포로 BC 458년 때 대표로 에스라, 스가라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여 성중건령이란 성전 재건을 마치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옴을 성중건령이라 합니다. 그리고 제3차포로 귀환지도자 BC 445년에 3차포로 귀환지도자는 느헤미야, 말라기 선지자와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여 성벽을 완성하였습니다.

② 62이레

십자가에 못(마27:25)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지 3일 만에 부활승천(행1:9-11)하셨습니다.

④ 마지막 한이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단9:27).

마지막 한이레는 단2장, 7장, 9장에서 한 나라(한이레)를 예언하신 말씀대로 철과 같은 강한나라에 열 뿔이 있고 열 뿔에서 한나라가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열 뿔 즉, 1957년에 27개국 연합이 됐고 앞으로 27나라 안에서 한나라(한이레)가 나오는데 다니엘 7장 20절 말씀 같이 한나라가 나오기 직전 강성한 세 나라가 퇴출될 때 한나라가 나옵니다.

(9면으로 계속)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 579-7576, Fax. (702) 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교제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성령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4:00-7:00</p> <p>Tel. (773) 9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예: 오후 8: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p>	<p>벤넬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예배: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p>
<p>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 49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알칸사 제자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 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326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tmer Rd., PA 19044</p>	<p>킬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Tel. (254) 535-1842(H), (254) 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p>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세음교회)

절망을 극복한 사람

중학교 1학년 때 축구공에 눈이 맞아 실명하고 그 일로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 뇌일혈로 세상을 뜨자 고아 된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 수년간 방황했던 강영우 씨는 어느 목사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믿고 '갓지 못한 한 가지를 불평하기보다 가진 10가지를 감사하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미국으로 와서

갓은 고생 끝에 1976년 4월 25일 피츠버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독이 인생처럼 쓰러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미국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강영우 박사의 큰아들 진석 씨는

하버드대학을 나와 듀크대학 병원에 근무하며 산부인과 의사인 아내를 맞았고 작은아들 진영 씨는 변호사로, 아내 역시 하버드법대를 졸업한 변호사입니다.

강영우 박사의 부인 석은옥 씨는 미국교육 인명사전, 미국 여성명사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라가는 명사가 되었습니다. 강

영우 박사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믿음의 승리가 되어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2012년 2월 24일 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절망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 중에는 시각장애인으로 3개의 박사학위를 받은 한국의 헬렌 켈러 김선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는 어린 시절 강통을 듣고 전국을 돌며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친척에게 모진 학대를 당하고 매를 맞아 머리와 몸에는 상처의 흔적들이 자자히 남았습니다. 거지생활 할 때 다리에 동상이 걸리고 식중독으로 죽을 고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두 다리를 절단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한평생 감사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 맹학교에서 점자교육을 받고 숭실중고등학교와 숭실대학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을 나와 시카고 맥코믹신학

교에서 박사학위, 모교인 숭실대학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 장로회신학대학서 명예신학박사학위, 3개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천 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털어 장학금을 준 숨은 봉사자로, 실로암안과병원 원장으로 수많은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열어준 공로가 인정되어 아시아의 노벨상이란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강통을 듣고 전국을 헤메던 거지소년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파 한 끼에 13원하는 식사 값이 없어 뒷산에 올라가 소나무의 새싹을 잘라 먹던 배고픈 시각장애인을 하나님은 승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넘어서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독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선태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

이 "내가 능력이신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스런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부활의 예수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이 들어 존귀케 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1년 8개월이 넘게 장기화 되면서 이전 변이 바이러스의 창궐로 모두들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사랑의 능력과 예수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위에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며 기쁨과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창조해 나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dik0184@yahoo.com

특/별/기/고

이만호 목사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기리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복음 전도자" 한국교회 부흥과 세계교회 성장을 주도하며 개신교 선교역사에 한 획을 그은 존경하는 영적인 스승 조용기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니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구하고 가족까지도 챙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성령목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성령님! 같이 가 주시지요!, 성령님! 설교해 주시지요!, 성령님! 설교해 주

으로 꿈과 비전을 갖고 4차원 영적세계를 바라보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구를 120바퀴 돌면서 세계각지에서 성회를 인도하시고, 특히 브라질에서는 150만명까지 성회를 인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을 이제는 범지 못하고 하늘나라에서만 만날 생각을 하니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목사님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6.25 이후에 어려웠던 수천만의



조용기 목사(가운데)와 이만호 이진아 목사부부

서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들이는 삶으로 성령님과 의논하여 결정하고 믿고 나가시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님의 뜻대로만 목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란이 있어도 성령충만 하신

한국 성도들과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던 역사에 길이 남으실 분이십니다.

이 땅에 남은 유가족들과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책소개

저자 정지운 목사(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이사장)

시집 '열정'

준엄한 당신의 손이/ 살며시 내 어깨를 잡으면/ 분홍빛 얼굴이 되어/ 머리가 숙여집니다/ 가려다 뒤돌아보면서/ 펼쳐진 당신의 손바닥에/ 부끄러움의 열매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을 묶어/ 소중하게

열정을 출간했다. 시인은 크리스찬 문학과 함께한 37년의 삶,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바이러스 사건 등 많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왔던 미국 생활 46년의 발자취를 담았다.

정지운 목사는 머리말을 통

미국 생활 46년의 발자취 담아내

드리려 합니다/ 진실한 종이 되어/ 당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침묵의 길)

시인 정지운 목사(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이사장)가 시집 '열정'

해 "나의 마지막 시집 '열정'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하며 "글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게 한다"고 고백했다.



본 시집에는 '바람개비', '달빛여울', '화려한 외출', '기다린 바람'으로 구분돼 각 목록마다 22편씩 수록 총 80여편의 시를 담았으며 송축시로 홍승주(시인, 문예비평가) 시인의 '사랑의 영광'이 수록돼 있다.

정지운 목사의 저서는 '사랑의 징검다리'(화보집)와 '정지운의 발자취'(미국이민생활 40년사), '겨울나무의 향수' 외 다수가 있다.

시집에 관한 문의는 (213)249-0771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언제 에덴동산에...

(8면에서 계속)

그러나 현재 강성한 나라 영국이 2020년도에 EU연합국가에서 나왔습니다. 앞으로 두 나라란 퇴출되면 한나라가 나옵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뤄져가고 있습니다. 한나라가 나오면 세상이 끝나며(단9:24)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입니다.(도표3)

⑤마지막 한이레 전에 해야 할 일 이 시대는 7복을 전해야함니다

다. △7복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법(계2:7)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법(계2:8-12) △만나를 먹는 법(계2:12-17) △새벽별을 받는 법(계2:18-29)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는 법(계3:1-6)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법(계3:7-12) △하나님 보좌에 함께 있는 법(계3:13-21)

이 위에 기록된 7복을 전해야 할 때가 지금 이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마에 어린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된자 언약을 맺은 자 △사이비 종교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하고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어린양에 속해있는 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위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계14:1-5)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시고 있는 때에 이 때입니다(계7:2-3).

andcny1@g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listing various churches such as 동부(NY, NJ)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리빙스톤교회,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사랑의동산교회, 어린양 개혁교회, 빛과소금교회, 퀸즈장로교회, 맨큐버라델비아교회, 브라질 한인교회, 브라질 서물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지교회.

동부교계 기사판

조용기 목사 분향소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 설치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 별세에 뉴욕교계에 분향소가 설치된다. 뉴욕순복음연합교회 담임 양승호 목사는 "제자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격리 때문에 한국 가는 것이 여의치 않고 5일장으로 하지만 장례 참석 인원이 한정되어 가지 못하게 돼 여의도순복음교회와 논의해 뉴욕순복음연합교회에서 13일 정오부터 분향소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의: (718)359-0166

ATS 한인동문회 가을 야유회

ATS 한인동문회 가을 야유회가 9월 27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뉴저지 잉글우드 피크닉 에어리아(Henry Hudson Dr, Englewood Cliffs, NJ 07632)에서 열린다.
▲문의: (201)647-7766 박근재 목사

뉴욕교협 제 47회 정기총회 공고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제47회 정기총회가 10월 14일(목)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린다. 총대는 9월 27일(화)부터 10월 8일(금) 오후 5시까지 사전 등록해야 하며 당일 아이디를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다. 담임목사 불참 시 위임이 가능하며, 위임장은 사전등록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등록 총대는 2명으로 목사대표 1인, 평신도대표 1인으로 △사전등록 방법은

①Homepage www.nyckcg.org ②Email: nyckcg@gmail.com ③문자: 347-638-4596 ④사무실 방문 접수 등이다. 연회비는 120달러이며 온라인으로 등록할 경우 크레딧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뉴욕교협은 정기총회에 앞서 9월 30일 오후 시 임시총회를 열고 특별혁신위원회가 기간한 헌법개정안을 논의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Th.M(설교학) 오픈강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종교개혁가에게 배우는 설교”

동부개혁장신 Th.M(설교학) 오픈강의 강사 류응렬 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가 2021년 가을학기기에 신설하는 Th. M(설교학) 오픈강의가 9월 8일 오전 10시 동 신학교가 위치한 퀸즈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동문 및 재학생,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강의는 이번 첫 학기 교수를 맡은 류응렬 목사(와싱턴중앙장로교회 담임)가 강사로 초청됐다. 류응렬 목사는 “종교개혁가에게 배우는 설교”라는 제목의 강의에서 “제 2의 종교개혁은 강단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설교자가 살아야 강단이 산다. 설교자는 태양이 아니라 달이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았을 때라고 생각하라. 인생의 마지막 설교처럼 전하라”고 역설했다. 류응렬 목사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존 나스에 대해 언급하고, “현대는 제 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인데 종교개혁은 성경해석과 설교에서 시작한다”라며 루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칼빈에 대해 강의했다.

문, 독자인데 칼빈은 철저히 저지중심으로, 본문 저자 마음을 알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응렬 목사는 “신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주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박수 받게 되는 상황이 힘들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하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둘째, 외적 이유로 성경진리를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 셋째,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로 받은 우리의 본분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묻고 “성공과 실패는 준비에 달려있다.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잘 준비해야 한다. 준비단계는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내 안에 악들인데 쓴 뿌리

(유원정 기자)

KAPC 뉴욕일원 노회들 정기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일원의 5개 노회가 9월 가을 정기노회를 열었다. 가장 먼저 뉴욕서노회 제 89회 정기노회가 9월 7일 오전 9시 뉴욕만나교회(정관호 목사)에서 열렸으며 당일 오후 2시에는 뉴욕남노회 제 21회 정기노회가 뉴욕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에서 열렸다. 14일 오전 10시에는 뉴욕노회 제 89회 정기노회가 임영건 목사(임영건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노회

지난 14일 오전 10시 열린 제 89회 정기노회 회무처리에 서는 현의 청원접수로 △서육석 목사의 반석교회 설립과 노회가입 △린즈장로교회 허장길 목사고시 청원 △뉴욕선교로교회 전은호 목사고시 청원이 보고됐다.

1부 예배는 노회장 이종원 목사 인도로 기도 방정훈 목사, 설교 이종원 목사, 성찬예식 인도 이윤석 목사, 축도 허윤준 목사, 광고 임영건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원 목사는 고린도전서 14장 13-15절을 본문으로 “온전한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온전한 기도는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는 말씀대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역사를 체험하자”고 전했다.

2부 회의는 노회장 이종원 목사 사회로 회원호명 후 서기 사무보고, 헌의 청원문서 접수 보고, 각부 보고, 각 시찰보고, 회계보고, 선교사역보고, 신안건 토의 등으로 진행됐다.

뉴욕노회는 뉴욕시찰(시찰장 문종은 목사), 동시찰(시찰장 이규본 목사), 서시찰(시찰장 이윤석 목사) 등 3개 시찰에 총 24개 교회와 목사회원 37명, 선교사 5명, 전도목사 5명이 소속돼 있다.

뉴욕서노회

지난 7일 오전 9시에 열린 제 89회 정기노회 회무처리에서는 특별한 이슈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교회(담임 성호영 목사)의 교회당 주소 변경청원, 그리고 3개 시찰회별 교회수 재정조 건을 다뤘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노회장 박정식 목사 인도로 기도 신두현 목사, 설교 조부호 목사, 성찬예식 집례 서기 임일송 목사, 헌금기도 유기찬 목사, 축도 정관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조부호 목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함시다”(벤전2:1-10)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먼저 팬데믹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로 받은 우리의 본분을 새롭게 다져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 묻고 “성공과 실패는 준비에 달려있다.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잘 준비해야 한다. 준비단계는 버리는 것과 채우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내 안에 악들인데 쓴 뿌리

로 남아 그것이 자라 밖으로 표출된다. 또 생활을 단순화 하면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말하고 “버렸으면 채워야 한다. ‘꼭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며 생명인 말씀으로 채우고 말씀이 없으면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만큼 남에게 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채우고 담고 있는가에 따라 양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제공할 수도, 굶주리게 할 수도 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베풀 감격으로 선포하는 귀한 본분을 다하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잘 섬기라.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의 제사가 중요하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뉴욕서노회는 3개 시찰회에 25개 교회가 소속돼 있다. 또 목사회원 39명, 선교사 6명, 장로 총대 7명, 별명부 18명이 있다.

뉴욕남노회

뉴욕남노회 제 21회 정기노회에서는 7일 오전에 목사고시를 시행했으며 아이작 리(이상익, 뉴욕센트럴교회) 전도사가 합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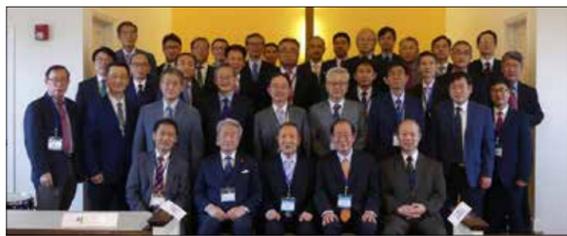
또 노회장 임흥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회무처리에서는 시찰회 보고를 통해 교회들의 소식을 나눴다. 남노회 소속 교회들은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들이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지교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방역용품 나누는 등 구제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희망의 소식이 전했다. 교통사고를 당한 목회자 자녀를 위한 합심기도 시간도 가졌다.

1부 개회예배는 노회장 임흥섭 목사 사회로 기도 권영국 목사(사랑으로사는교회), 설교 노회장, 성찬예식, 축도 증경총회장 김재열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성찬예식은 조덕남 목사(뉴저지새교회)의 집례로 조성희 목사(후리산장로교회)가 기도를 했으며, 박덕수 장로와 서명환 장로(뉴욕센트럴교회)가 분병과 분찬을 맡았다.

임흥섭 목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요:1:14-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회자로 교회지도자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 지 나누고자 한다”며 “복음은 내가 어떤 피해를 당해도 바꿀 수 없다. 복음에는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삶은 겸손해야 한다. 내 몸에 예수 그리스

도가 계시고, 나를 통해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매주 마음을 비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순결해지고 거룩해져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노회 제 89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서노회 제 89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남노회 제 21회 정기노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할렐루야대회 강사 양창근 선교사를 초청해 열린 뉴욕교협 목회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아리바 파라과이! 사역간증

뉴욕교협 목회자세미나, 강사 양창근 선교사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가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예정된 가운데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목회자세미나가 개최됐다. 대회 강사 양창근 선교사를 강사로 대한교회(담임 김전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는 많은 목회자들이 참가했으며 특히 증경회장이 대거 참석해 준비위원장 이준성 목사가 앞으로 초청해 감사를 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은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며 “마지막 시대 요엘서에서 강물이 흘러 부흥을 일으키듯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목회자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창근 선교사는 ‘파라과이를 위한 성경 이야기 60장’ 중 특별히 22절을 본문으로 “미래를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19세에 파라과이로 이민 가서 44년 동안 살면서 37년 선교사역 동안 동행하셨던 하나

님의 은혜를 간증했으며, 특히 어린이 중심의 사역을 소개했다. 양창근 선교사는 현재 △생명의샘터장로교회 및 개척한 4개 지교회를 돌보며 △세인트폴스쿨(유치원-고등학교) 이사장 △에델린 인디언주장학교 교장 △아리바 파라과이 파운데이션을 통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인디언학교 교실건축, 휠체어 나눔 등을 하며 △Arriba Ninos Jovenes 어린이 청소년 대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다. 세미나는 정순원 목사(증경회장) 인도로 찬양 및 합심기도 사마임찬양팀, 대표기도 전희수 목사(혁신위 부위원장), 특송 정바울 김사라 목사부부와 송금희 전도사, 인사 문석호 목사(회장), 강사소개 김희복 목사(부회장), 특송 성음크로마하 프선교단, 강의 양창근 선교사, 광고 박시훈 목사(서기), 축도 양민석 목사(직전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뉴욕한민교회 은퇴 김정국 목사 별세

뉴욕한민교회 은퇴목사인 김정국 목사(사진)가 지난 9월 12일 오전 6시 뉴저지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83세. 간암으로 투병 중이었다. 김정국 목사는 계명대학교 철학과, 장로회신학대학원과 연세대연합신대원을 졸업했으며 1969년 목사안수를 받고 용산교회 부교역자, 보광중앙교회 개척목사, 경주제일교회 담임목사로 목회하다 뉴욕 한민교회 초청을 받고 1982년 1월 부임했다. 교단적으로는 해외한인장로회(KPCA) 총회장, 교계적으로는 뉴욕교협 14대 회장과 뉴욕목사회 28회기 회장을 역임하고 은퇴후에도 뉴욕원로성직자

회 회장과 뉴저지 은퇴목사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GTO 선교교육재단 대표로 활동했다. 또 뉴욕일원 여러 신학교에서 강의했다. 장례는 해외한인장로회 총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입관에 배는 14일 저녁 넘치는교회(뉴욕한민교회)에서 열렸다. 15일 중앙장사사에서 발인예배를 드리고 장지 무궁화동산에서 하관예배를 드렸다. ▲유가족 연락처: (201)725-5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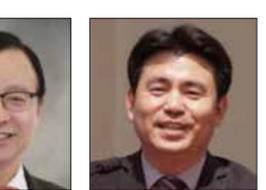


김정국 목사

회장 후보 고한승 목사, 부회장 후보 육민호 목사

뉴저지교협 34회기 선관위 정부회장 후보 발표

뉴저지교협 34회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동신 목사)가 9월 30일 열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8월 26일 회장 후보 고한승 목사(뉴저지연합교회)와 부회장 후보 육민호 목사(주소원교회)를 확정 발표했다. 회장 후보자 고한승 목사는 교협에서 부회장과 기록서기를 역임했으며, 1988년 기감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 UMC 소속이다. 부회장 후보자 육민호 목사는 교협에서 총무와 서기를 비롯해 2012년부터 각종 위원장



회장후보 고한승 목사

부회장후보 육민호 목사

을 역임했다. 2007년 예장국제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현재 동일교단 소속이다. 선거관위는 8월 26일 등록마감까지 회장후보 1명 부회장후보 2명이 등록했다고 밝힌바 있다. 부회장 후보 육민호 목사는 선관위 심의를 통과했으나, 김동권 목사는 입후보 자격에 있어 △분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 △최근 5년 동안 회비를 납한 자 라는 두 항에 있어 해석이 양분됐다. 김동권 목사는 “후보등록 할 당시 내가 단독후보인줄 알았다. 육민호 목사는 나보다 교협에 먼저 몸담고 오랜 기간 헌신해온 것을 안다. 내가 양보하는 것이 미덕이라는 결심이 섰다”라며 후보등록을 철회했다. 선관위원장 장동신 목사는 소회를 통해 “규정(법)에 충실한 심사를 한다. 그리고 해석이 상충될 때는 규정을 만든 이유(배경, 의도 등)를 파악하고 준용한다”라는 두 가지 심의원칙을 소개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선관위 규정의 수정과 보완의 필요를 알게 됐으며, 가능하다면 선관위 규정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을 건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유원정 기자)



KPCA 서노회 신임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우측 첫번째 삽자가 밑이 지영환 신임 노회장)

새 노회장 지영환 목사, 부노회장 박은성 목사 KPCA 서노회 제97회 정기노회, 평신도부노회장김재철 장로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노회 제97회 정기노회가 주님 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에서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렸다. 회원집명에서 휴무위원의 노회참석여부 논의로 예정 시간보다 늦게 개최됐다.

이날 노회는 신임 임원 선출했으며 지영환 목사가 노회장에게, 박은성 목사와 김재철 장로가 부노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지영환 신임 노회장은 "신임 노회장으로서 회원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박헌주

전도사(나성영락교회) 목사안수식이 열렸다. 다음은 97회 KPCA서노회 임원 명단이다.

△노회장: 지영환 목사(주소망교회) △부노회장: 박은성 목사(나성영락교회), 김재철 장로(주소망교회) △서기: 이현동 목사(라카나다아름다운교회) △부서기: 노영호 목사(새한교회) △회록서기: 이태근 목사(새마음교회) △회록부서기: 조준석 목사(예수생명교회) △회계: 황병호 장로(나성영락교회) △부회계: 손흥수 장로(주님세운교회).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 2021 가을학기 온라인 수련회에서 임성진 총장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사역에서 역량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 월드미션대 2021 가을학기 온라인 수련회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2021 가을학기 온라인 수련회가 10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개최됐다.

최원현 학생회장 인도로 아이스브레이크와 윤임상 학생처장 사회로 시작된 이날 수련회는 찬양, 최윤정 교수 기도, 임성진 총장이 '성전건축과 수련회(왕상6: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임 총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다. 성전건축 자재는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사역도 목회, 선교, NGO 등 다양하다. 사역의 기능과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사역이다.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량을 갖추는 것"이라 말했다.

임 총장은 "성전현장에서 건축하지만 연장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했다. 그것은 업속함과 하나님을 향한 평화가 깃들여져 있는 것"이라며 "사역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 능력이다. 그것은 집회 금식기도 성경연구 등 다양하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송경화 교수가 '나는 너로 인해 나가 된다', 김민지 교수가 '타인과의 관계'라는 주제로 강의했으며 남종성 교수가 전체기도회를 인도했다.

또한 16개로 팀을 나눠 온라인으로 팀별 토론을 했으며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토론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수련회는 임성진 총장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해변문학제에서 송종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시 낭송 및 “기억과 생각...” 특강 크리스천문협 주최 제33회 해변문학제 열어

크리스천문인협회(회장 송종록 목사)가 주최한 제33회 해변문학제가 '문학, 뇌, 사고, 생각, 명상'이라는 주제로 11일 오전 10시 로텍호텔에서 열렸다.

회장 송종록 목사는 "33회 미주 크리스천 해변 문학제를 열게 돼 감사하다. 일상 속에서 영감 있는 작품들을 써 힘들어 하는 동포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겼으면 좋겠고 오늘 행사가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문학제는 송종록 회장의 인사 후 최학량 목사가 기도를 했다.

이어 김복임(화가), 셀리퀸(수필가), 김태영(낭송가), 조이정(사무국장) 씨가 시를 낭송했다. 이어서 내과의사이며 소설가인 연구호 씨가 '기억과 생각 그리고 문학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문의: (773)600-1860, (213)249-0771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와 온라인 협약식을 가진 후 함께 한 신정호 예장 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예장통합-월드미션대 MOU 맺어 9월 7일 온라인으로...연장교육 등 협력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총회장 신정호 목사)가 지난 9월 7일 총회장립 100주년기념관 총회장실에서 온라인으로 업무협약식(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서 신정호 총회장은 "지역을 뛰어넘어 미국 LA에 있는 월드미션대학교와 교단이 MOU를 맺으며 미래를 향해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많은 목회자들이 월드미션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영광을 돌리는 협약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월드비전대학교 임성진 총장은 "학교 개교 이래 온라인 교육을 발전시켜왔는데 코로나 19를 맞아 우리 학교의 역할이 커졌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소속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우리 학교가 최선을 다해 연장교육과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1989년 3월 27일 고 임동선 목사가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해 선교사, 목회자, 기독교 사역자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다. ABHE와 ATS의 인가를 받았으며, 신학, 음악학, 상담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예배학, 글로벌 리더십의 전공을 두고 캠퍼스 및 온라인교육(수료과정, 준학사, 학사, 석사, 박사) 프로그램도 병행하고 있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서부교계 게시판

제 17회 GIM 국제선교대회

제17회 GIM(글로벌국제선교교회연합) 글로벌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윤명 목사)가 9월 19일(주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프리몬트에 있는 Echo.Church-Crossroads(담임 Paul McGovern 목사)에서 열린다.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이다"(시96:3) 주제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사61:1)가 부제다. 주 강사는 릭 더스트 박사(Rick Durst, Gateway Seminary 석좌교수), 드레이크 웰(Blake Fenn, "The Bridge of San Martin, Messianic Jew) 목사. www.VisionGIM.org

▲문의: (925)639-9527

소망소사이어티 치매 간병 전문인 교육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이하 소망)는 치매환자들과 가족을 위해 치매 간병인 전문교육(NCCDOP)을 9월 23일(목)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이프레스의 소망홀(5836 Corporate Ave. CA, #110)에서 진행한다. 강사는 최경철(호스피스 채플린, 소망소사이어티 사무총장), 남궁수진(소망케어 교실 담당 팀장), 사라고(정신과 Nurse Practitioner, NCCDP Certification을 원할 경우(자격조건: 3년 이상 치매관련 직업 종사자나 자원봉사자) 취득할 수 있다. 회비는 150달러이며, 점심식사가 제공된다. 소망회원들에게는 할인 혜택도 있다.

▲문의: (626)977-4580

조용기 목사 분향소 나성순복음교회에 설치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 별세에 남가주교계에 분향소가 설치된다. 분향소는 15일(수) 오전 7시부터 17일(금) 오후 4시까지 설치가 된다. 한편 고인의 천국환송예배는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현지시간 18일(토) 오전 7시, 하관예배는 같은날 오전 10시 오산리기도원묘원에서 갖게 되며 남가주지역은 현지시간에 맞춰 17일(금) 오후 4시, 오후 6시에 열리게 된다. 장소는 LA지역은 나성순복음교회, OC지역은 베테스다대학교 채플에서 갖는다.

▲문의: (323)913-4499, (714)683-1212

담임목사 청빙

휴스턴한인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요건은 신학대학원(M.Div) 졸업, 이민교회 3년 이상 담임목회(부목사 포함), 이중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미 시민권/영주권 소지자 △제출서류는 본인/사모 이력서, 자기소개서(가족사진 첨부), 목회철학/비전계획서/간증서, 6개월 이내 설교영상 2회분, 대학교/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제출서류는 이메일(kcch2019@gmail.com)로, 설교CD는 우편(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으로 보내도 된다.

▲문의: kcch2019@gmail.com



예담교회, 노동절에 괴한에게 피격 총알 7발 교회 벽과 목회실 창문 향해 발사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예담교회(담임 김길운 목사, 구 비버튼한인장로교회)가 노동절에 정체불명의 괴한에 의해 총격을 받아 총격을 주고 있다.

괴한은 지난 6일 노동절에 교회에 침입해 창문 등에 7발의 총알을 난사했다. 김길운 목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아시아 혐오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목사는 "7발의 총알이 교회 벽과 목회실 창문 등을 향해 발사됐으며, 공휴일이라 예배가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한 인교회를 혐오하는 아시안 혐오범죄라고 단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카운티 셰리프국은 증거물로 탄피 4개를 찾았으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장로교(PCUSA) 소속인 예담교회는 지난 6월 비버튼한인장로교회에서 '예담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1979년 창립해 안병관 목사를 1대 담임목사로 출발했으며, 현재 3대 목사인 김길운 목사가 담임으로 사역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인천상륙작전 71주년 포럼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맥아더,, 손원일 제독 등 리더십 분석 기독교인회통일연구소 공동 인천상륙작전 71주년 기념포럼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와 그레이트한반도 통일리더십 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인천상륙작전 71주년 기념 포럼을 11일 오전 11시 말씀새로운교회(담임 김희창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3명의 강사가 발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태이 예비역 해군제독이 '맥아더 원수 상륙작전 분석'이란 제목으로 평생 해군 정보통 장장으로 근무한 실무 중심의 발제였고, 김희창 목사가 '맥아더 원수와 손원일 제독의 문화소통분석'을 발표했으며 서울대 정외과, 뉴욕주립대학교의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주준희 박사가 '맥아더 장군의 국제지도력 분석'을 맥아더 원수를 전공한 입장에서 발표했다.

주준희 박사는 "맥아더는 주둔지 나라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제공하려했고, 군사적으로 깊은 연관을 통해 경제적인 발판을 놓아 미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의 전파자로 소개하려 했고 인간위에 인간 없고 인간 아래 인간 없다는 평등 자유사상을 군사적 전략적 접근으로 사회를 받게 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포럼 후 이종애 박사가 축사했고, 김수경 교수, 임화자 전 도사, 월드타운찬양단, 김소연 울동단이 축하와 찬양이 있으며 자국본 수석부회장 권성주 정교가 만세삼창을 선창했다.

한편 1부 예배는 최학량 목사 사회로 차기학부회장 기도, 남상국 목사가 '알아라 면서기 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다음 모임은 '전쟁과 평화 리더십' 제목으로 호국포럼을 10월 9일(토) 11시에 말씀새로운교회에서 모이게 된다. 자세한 것은 (213)268-936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남가주한국예비역군인회)



GMU개강부흥회에서 한기홍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그레이스미션대 개강부흥회 대면으로

그레이스미션대학교(이하 GMU, 총장 최규남 박사)에서는 2021년 가을학기도 모든 강의가 실시간 및 통상, 온라인 하이브리드(Hybrid)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강의시작 주간인 8월 23일부터 3일에 걸쳐 개강부흥회를 본교가 위치한 은혜한인교회 미라클센터에서 개최했다.

강사는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가 23일 '선지자의 죄(은 1:1-10)', 24일 '선지자의 기도(은 2:1-10)', 26일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자(히 12:1-3)'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GMU는 미 연방교육국 USDE가 인정하는 학위과정으로 ABHE, TRACS, ATS의 정회원으로 신학(BA), 상담학(BACC), 기독교상담학사(MACC), 기독교교육학사(MACE), 선교학석사(MAICS), 목회학석사(M.Div), 선교학박사(DMis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8개의 학위과정과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인 PELL GRANT와 캘리포니아 주정부 학비보조 CAL GRANT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00% 통상교육이 제공되며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통역강의가 있다.

▲문의: (714)525-0088(Ext101) (기사제공: 은혜한인교회)

고 흥명기 미주한인회장협 총회장 연합추모식

고 흥명기 총회장 한인단체 연합추모식이 지난 9월 13일 오후 6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김민아 인랜드한인회 회장 사회로 열린 추모식은 신승훈 목사가 기도했으며 조병태 준 비위원장 인사, 고인아, 차녀 크리스틴 홍, 박경태 LA총영사, 미셸박스틸 연방하원의원, 최석호 거주하원의원, 정동춘 부 학비보조인 PELL GRANT와 친우, 한보화 리버사이드 한국 학교 교장, 제인스 안 LA한인회 회장, 권석대 OC한인회 회장, 데이빗류 전 LA시의원, 데이빗류 미주도산기념사업회 수석부회장, 오충환 로마리다교회 담임 목사가 추모사했으며, 테너 최원현, 세천사 합창단이 조가를 불렀으며 바이올리스트 박윤재 교수와 피아니스트 윤경미 교수가 추모연주를 했다.

이어서 미주한인 동포 단체들이 고인 의 영정에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고인이 생전 인터뷰를 한 장면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인 무실, 역행, 총의, 용감, 그리고 지, 덕, 체를 몸소 행했던 그의 삶을 담은 영상이 소개됐다.

이날 추모식은 폴승 미주한인회회장협회 총회장 대행의 인사를 맡아 한 뒤 마쳤다.

고인은 지난 8월 18일 타계했으며 9월 2일 로마리다 SDA 교회에서 장례식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흥명기 총회장

새 총회장 배광식 목사, 부총회장 권순웅 목사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 울산 3개 교회서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가 13일 울산 우정교회(예동열 목사) 대암교회(배광식 목사) 태화교회(양성태 목사)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했다.

개회 예배에서 지난 회기 총회장으로 섬긴 소강석 목사는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일 년이었으나 예배 회복과 한국교회 하나 됨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앞으로 우리 교단은 개혁신학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등 한국교회를 위한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설교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하루 동안 3개 교회에서 분산해 열고 있다. 3개 교회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연결했다. 노회 별로 공평하게

의견 개진 기회를 주기 위해 각 노회 총대의 2/3는 메인 회의장인 우정교회로, 1/3은 대암·태화교회로 배정해 방역에 만전을 기했으며 성찬식과 성가대 찬양은 생략했다.

둘째 날 열린 총회에서는 신입 총회장에 부회장 배광식 목사(울산 대암교회)가 추대 받았다.

배 총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와 교회가 모두 위태로운 시기에 중책을 맡았다”며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로운 동행’을 시작하려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전국적인 기도 운동을 계속 전개해, 신앙의 본질과 영성을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한국교회의 신뢰 회복과 연합에 앞장서고 미래자립교회와 놓여

총회회를 힘 있게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전자투표 끝에 권순웅 목사 727표, 민찬기 목사 709표로 권 목사가 당선됐다. 권 부총회장은 “개혁주의에 기초한 부흥운동을 통해 함께 가는 플랫폼 총회를 만들며, 섬김의 리더십으로 섬기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4명의 후보가 경합했던 부서기 선거에서는 고광석 목사(광주서광교회)가 513표로 당선됐다. 이밖에 서기에 허은 목사(부산동현교회) 회록서기 이종철 목사(두란노교회) 회계 홍석환 장로(강북성산교회)가 추대 받았다. 노병선 장로(오산비전교회)는 장로 부총회장, 한기영 목사(전주은강교회)는 부회록

권 취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리커버는 8일 “공영방송은 보편성에 기반을 두고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야 하지만, 소아성애와 근친상간은 결코 교육방송 EBS가 대중화할 수 있는 보편적 교육 가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6일에 바른인권여성연합이 성명을 내고 “보편성을 부정하는 버틀러의 왜곡된 시각은 도덕과 윤리, 보편타당한 질서를 넘어선 모든 형태의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쓰이고 있다”며 “동성애뿐 아니라 소아성애와 근친상간까지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틀러의 이론은 한 세대를 거치며 이미 그 허구성과 반사회성이 입증돼 현재 세계 곳곳에서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에게 건전한 교육적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공익성을 표방하는 EBS에서 버틀러를 위대한 학자로 소개한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교원채용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원채용 절차의 일부를 교육감에게 강제위탁하는 내용의 법률 조항은 사학운영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제37조 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향후 법적 대응에 필요한 요건도 제시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주체는 개별 사립학교법인이어야 한다. 사립법인들로 구성된 단체는 청구 자격이 없다.

사학법 개정과는 별개로 자체적으로 교원 채용을 강제위탁하는 일부 교육청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변 변호사는 “일부 교육청은 교원채용 절차를 교육청에 위탁하지 않는 학교에 대한 재정결합보조금 지급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강제위탁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절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어 한국기독교연합회 홈페이지 회장은 “사학법 개정 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공·사립 동시 지원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서기, 지동번 장로(강변교회)는 부회회에 각각 올랐다.

총회는 세계복음주의연맹(WEA)과 교류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WEA의 실제가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결론을 유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기로 했다. WEA와 교류 여부는 지난 회기 세 차례 공청회에서 뜨거운 찬반 토의가 이뤄질 정도로 큰 이슈였으나 총회 현장에서는 특별한 논의 없이 지나갔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는 선을 그었다. 이단(사이비) 피해대책조사연구위원회는 전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연구 끝에 “전씨가 (본인의) 발언 내용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까지 신앙적 집회 참여금지를 촉구하기로 하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총대들은 이를 통과시켰다.

정년연구위원회는 ‘목사와 장로의 시무 정년은 헌법대로 하되 지교회와 원할 경우 노회의 허락 하에 만 73세까지 지교회만 시무하며 대외활동은 금한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으나 부결됐다.

예장합동은 논의하지 못한 안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고 6시간 만에 총회를 끝냈다. 폐회 예배에서 배광식 총회장은 “우리 교회와 교단을 세우는 데 모두 힘을 합쳐 동행하자”고 총대들을 격려했다.

장종현 총회장 유임,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

백석 제44회 총회, 천안 백석대학교교회에서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이 13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교회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개회예배에서 장종현 총회장은 “목회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그 자체로 전해야 한다”면서 “가슴 속에서 생명화된 복음, 말씀을 마음 판에 새겨서 토하지 않는다면 성도들의 영혼은 메마르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총회장은 “예장백석이,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말씀의 생활화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 말씀의 생명화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치자”고 당부했다.

회무시간에는 총회장에 장종현 현 총회장을, 목사부총회장에 김진범 서울 하늘문교회 목사를 추대했다. 장로부총회장에는 원형득 장로가, 사무총장에는 김중명 현 사무총장이 선출됐다.

이날 총회에는 50% 감축된 전체 총대(541명) 중 459명이 참석했다. 총대들은 임원선거의 방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양병희 전 총회장은 “교단이 코로나로 위중한 상황에 있는데, 기립박수로 총회장과 부총회장, 사무총장 후보를 박수로 추대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한 자격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인정 여부를 놓고 토론에 들어갔다. 총대들은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기립 투표로 후보자격을 인정해줬으며, 기립박수로 후보자 모두를 새 임원으로 선출했다.

한국교회의 큰 별 지다...조용기 목사 별세



조용기 목사

20세기 위대한 복음전도자로 추앙받는 조용기(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14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향년 86세[관련기사 9면]

조 목사는 뇌출혈성으로 이날 7시 13분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별세했다.

조 목사는 1958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최자실 전도사(1915-1989)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 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시작했다. 오종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단일교회 역사상 성도 수 78만명이라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다.

1966년부터 1978년까지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총회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 5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2008년 원로목사로 추대된 이후 지금까지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이사장을 지냈다.

고인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와 함께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로 손꼽힌다. 한국과 세계교회에 강력한 성령 운동과 철야 예배, 구역조직(셀 모임)의 핵심 원리를 전수했다. 조 목사는 세계 최대의 교회라는 타이틀에 그치지 않고 굿피플, 사랑과행복 나눔재단, 심장병어린이돕기 운동, 영산조용기자선재단 설립, 사회복지법인 엠엘복지회 운영, 평양조용기전문심장병원 건립 운동 등 각 분야로 전인 구원의 사역을 왕성하게 전개했다.

한세대, 순복음영산신학원, 미국 베데스다대, 국민일보, 신안개, FGTV, 굿티비 기독교복음방송 등을 설립하며 신학교육과 문서·방송 선교에도 힘썼다.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한국교회성장연구원 등을 통해 교회부흥의 원리를 전 세계에 나누며 성령 운동을 주도했다.

빈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다니홀에 마련됐다. 장례예식은 18일 한국교회장으로 진행되는 10시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묘원에서 열린다. 유족으로는 장남 희준, 차남 민제 국민일보 회장, 삼남 승재 한세대 이사 등이 있다. 부인 고 김성혜 여사와는 지난 2월 11일 사별했다.

기존 법률이 적시하는 차별금지 사유에 없던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려는 의도”라면서 “동성애를 넘어 동성혼을 법제화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 역차별을 넘어 교회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대들은 또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통합기구 설치를 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노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회원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총회에서 일괄 보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했다. 훗날 노회 설립이나 노회 편입 시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목회자 정년, 연금재단, 교역자 이종직, 총대 구성, 1만 교회 운동본부, 노회 간 불화시 화해중재원 신설 등과 관련된 헌법과 규칙 개정의 연구 검토를 추후 구성될 위원회에 맡겨 연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양병희 총회설립 45주년 준비위원장이 45주년 기념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폐막했다.

감리교 산하 3개 신대원 통합할까

16일 감신대 동문들 공청회 열기로

감리교신학대 동문들이 감리교 신학대 학원 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이 문제를 다루는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7일 감신대 총동문회(회장 이기우 목사)에 따르면 공청회는 오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감신대 웨슬리 채플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

세지면서 두 차례나 연기됐었다.

최 목사는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은 새로운 신학 교육에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행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인사권 뺀 사학법, 헌법보장 운영자유침해”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헌법소원·선거 등 대응결의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계가 지난달 31일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반발하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섰다. 개정된 사학법에 따라 기독교학교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되면 기독교학교의 존립 이유도 사라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9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긴급모임을 열고 사학법 개정안의 독소조항과 기독교학교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또 한국교회, 범기독교학교 단체들과 함께 헌법소원과 국회의원 낙선운동, 2022년 교육감선거 준비 등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전인 지난달 24일에도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와 미션네트워크가 이 같은 내용의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조이앤파트너스 변윤석 변호사는 개정된 사학법의 주요 내용을 14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쟁점 사안을 들여다봤다.

변 변호사는 “기존 사학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해오던 시민단체와 교원단체, 정치세력의 편향된 시각이 개정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사학의 자주성 관점에서 모두 법적 비판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변 변호사는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제53조 2의 교원임용절차의 강제위탁 조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절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변 변호사는 “사학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하나”라며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학운영의 중요한 자유 중 하나인

코로나 장기화...목회자들 ‘교인 감소’ 불안감 커진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설문조사 분석

이중직 목회자의 85.5%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교인 수 감소에 대한 목회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들이 예상한 교인 수 평균 감소 폭이 1년 전 20%에서 현재 27%로 뛰었다.

12일 목회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목회자 89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8%가 코로나19 종식 후 교인 수가 40% 이상 줄어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5월에는 목회자 1135명 중 오직 8%만이 성도 수 40% 이상 감소를 우려했었다. 교인 수가 20~30% 줄 것으로 본 목회자 비중이 31%로 가장 컸다. 연구소는 “교인 수 예상 감소 폭이 1년 전 평균 20%에서 현재 27%로 증가했다”며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목회자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종식 후 출석 교인 수 예상에 대해 응답자 절반 이상(57%)이 ‘감소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해 5월 같은 답변을 한 목회자 비중(49%)보다 소폭 늘었다. 다만 ‘교인 수가 증가할 것 같다’고 답한 비율도 지난해 5%에서 올해

16%로 뛰었다. ‘교인 수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41%에서 25%로 크게 줄었다. 연구소는 “코로나 1년”을 거치

현 주일예배 형태를 질문한 결과, 주일예배를 현장과 온라인에서 동시에 중계하는 교회가 전체의 52%인 것으로 나타났

중계 없이 현장 예배만 드리는 교회 비중도 36%로 적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중계하겠다는 답변은 34%에 그쳤다. 반면 종식 이후 온라인 없이 현장 예배만 드리겠다는 교회 비중은 41%에 달했다.

코로나19로 목회자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다음 세대 교육 문제’(24%)와 ‘출석 교인 수 감소’(23%), ‘교인들의 주일 성수 인식’(18%) 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코로나 종식 이후 예상 출석 교인 수 1년 전 평균 20% 감소서 27%로 뛰어 목회자 18%는 “40% 이상 줄어든 것”

면서 자신감 있는 교회와 더 위축되는 교회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라고 봤다.

다.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현장·온라인 동시 중계 비율이 25%에 그쳤는데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온라인

선/교/간/증 (5)

이하루 목사

윗마을 백두대간은 항상 인도 소 등가죽처럼 말라붙었습니다. 나무는 소 등쪽에 붙은 퐁파리처럼 셀 듯이 등성등성합니다. 열마 전 뉴스를 보니 그 놈의 고난의 행군이 뭔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해 또 고난의 행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누운 소처럼 생기(生氣)를 잃은 그 백두대간과 윗마을 분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지 걱정입니다.

무 경황이 없어서 모른 척 했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에서 그 자매를 다시 만났습니다. 잘 보더니 우는데 다시 외면할 수 없어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는 당혹스러운 눈치였지만 자상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와 어색한 저녁을 먹고, 그 후 3일 동안 집에서 지옥살이를 했습니다. 이 시국에 스

어서 성경을 무조건 잡고 읽었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덮자마자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숨이 쉬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자마자 다시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나 하나 죽으면 되는 데, 자칫하면 아내와 세 자녀 다 죽게 생겼다!” 물러오는 호흡질환에 잠자는 그 자매를 깨워서 “네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남쪽 그리스도인이다” “그나폴인지 탈북민인지 말해 달라!”고 다짜고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생명까지 걸고 너를 숨겨주었다. 내가 너를 숨이겠는가?” 하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자매는 저를 한참 보더니, 자기는 진짜 탈북자로서, 며칠 전 악덕 노동주로부터 도망하였고 지금 윗마을 특무요원들이 짝 짝한 상황에서 어디 갈 데도 숨을 데도 없다며 눈물 젖은 이야기를 쏟아놓았습니다.

모든 만난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고 속인 이야기, 두고 온 가족이야기 등등을 듣고 나서야 그녀가 스카이가 아님을 알고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숨이

러했을 것입니다. 태평양 고급호텔에서 먹는 그 어떤 레스토랑에서 먹는 음식보다 맛있고 잊을 수 없는 천국의 밥상이었습니다. 생명으로 연합하여 먹는 그런 아침의 식사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날로 시작해서 저는 자매에게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화장실에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기까지 2주가 안 넘었습니다.

윗마을 사정을 잘 아는 흑자는 어떻게 처음 성경을 접한 윗마을 사람이 3주 만에 변화될 수 있는나 의아해합니다. 보통 윗마을 사람에게서 주체사상을 빼내



내가 생명 건만금 그들도 생명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큰 생명을 걸면 그들은 내 말을 사랑으로 알고 순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생명을 건 만남이 진짜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목상할 수 있었고, 주체사상보다 더 강하고 빛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그때에 알았습니다. 윗마을 선교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을 줄 때에 비로소 그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게 된다는 것을! 후 이 글을 읽는 분중에, 망명한 윗마을 분들을 만나거든 내 것을 건 사랑으로 섬겨보시기를 권해봅니다. 분명히 이전과 다른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명을 건 만남이 진짜일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목상할 수 있었고, 주체사상보다 더 강하고 빛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영접하였습니다...

파이를 데리고 온거면 어찌지? 하는 두려움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돈과 컴퓨터를 보이는 데 놓고 나갔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3일 째, 도저히 숨도 쉴 수 없

그러자 “선생님이 누군지 어떻게 믿고 제 얘기를 하니까?”하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속이거나, 내가 너를 속이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쉬어지고 호흡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인도해주셨구나!’

그날 아침에 그 자매와 함께 먹은 밥상은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그녀도 그

는 데만도 최소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매보다 더 큰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심하는 만큼 그들도 의심하고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12강 / 야곱(4)(창 27-35장)

에서의 환대

에서가 데려오는 400인은 야곱을 세상에서 건지기 위한 ‘하나님의 소품’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서면 그것은 무대장치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두려움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브라함이 풍요의 땅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하란을 거치는 ‘극적 부르심’을 받았지만 애굽에 내려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두려워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는 ‘번제의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그날 왕을 두려워하여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과 같습니다. 야곱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직 야곱에게는 형이 두렵습니다.

면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자녀의 자세로 살겠습니다’ 해야 하는데 ‘죄인의 삶’에서 벗어나기가 이리도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어려움이 사라졌으니 쉬지 않고 달려 베엘로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아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세겜성에 이르러 집을 짓고 집승의 우릿간을 짓고 장막을 치고 밭을 사고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창33:17-20).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바뀐 이름이 ‘이스라엘’이니 ‘나의

를 사고(창34:7)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서로 통혼하겠다’(창34:15-17)는 거짓말로 성읍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합니다(창34:13-24). 그리고는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들어가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성읍을 노략하는 피의 복수를 하게 됩니다(창34:25-29). 야곱은 거쳐 갈 곳에 머물러 처절한 징계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창34:30). 이제 야곱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목욕하고 씻으라는 말보다는 영적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말도 되겠지만 ‘옷은 곧 삶’이므로 우상도 버리고 신앙도 회복하고 삶을 바꾸라는 것입니다(창35:2). 그리고 외칩니다.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말합니다(창35:3). 하나님도 대단하시고 야곱도 참 절긴 시간들이었습니다.

35:9,10). 야곱이 그렇게도 받고 싶었던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 이미 오던 길에 상당수 형 에서에게 주었고 ‘우상’도 ‘귀걸이’도 다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온다’ 하십니다(창35:11). 야곱을 통해서 이를 한 민족의 출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가나안을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 준다하십니다. 야곱의 생전에는 그 어느 것 하나 손에 잡고 누러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진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속해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던 야곱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는 ‘나그네의 삶’을 받은 것입니다.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의

야곱은 그의 죽음을 앞두고 먼저 요셉에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합니다(창47:30). 야곱은 이제 그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는 앞선 믿음의 열조와 같이 이제 몸만이 아닌 마음으로도 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11:16).

이후 야곱은 죽음 전에 그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합니다(창49:1). 여기서는 야곱이 이렇게 ‘너희의 장래 일을 말한대’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삶의 적절한 패배와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분명한 간섭과 돌보심을 인생 전체를 통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다 낳고서도 40년 가까이 그들과 생활하며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심,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서의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에 달려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증명했습니다.

구원하심, 부르심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뤄지지만 이 땅에서의 복 있는 자로 사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열매에 달려있어... 야곱은 그것을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증명...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야곱은 그동안 맞은 편치보다 한 100배 정도 강한 편치를 맞아야 정신이 들것 같습니다.

세겜에서

세겜은 머물 곳이 아니라 베엘을 가기 위해 속히 거쳐 가야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라반과 그의 아들들의 위협도, 형 에서와 400인의 두려움도 사라지자 야곱은 그 절절하던 마음을 풀고 세겜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세겜에 있으라 하신적 없이 끊임없이 베엘을 외치셨는데도 말입니다(창31:13).

그리고 마침내 세겜 성에서 그의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야곱이 받을 쫓던 하물의 아들들(창33:19) 중 하나인 그 땅의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창34:1,2). 그리고 그 사건은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

베엘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정말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마침내 야곱이 두 손과 두 발을 다 들 때까지 지키시고 지켜보시라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창35:1).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에게 서원했던 그대로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결국 야곱은 이 제사야 그의 ‘자녀의 신분, 죄인의 삶’을 정리합니다.

야곱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라헬(창31:19)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섬기고 또 이것저것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두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우상의 재료가 되는 귀고리들을 세겜에 묻고 떠납니다(창35:4). 이것이 바로 ‘결단’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닌 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만들어주십니다. 사면 고을들을 두려움으로 불드셔서 야곱 일행을 건드리지 못하는 편파적인 일 진행을 하시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편들기’는(창12:17-20, 20:3-7, 26:6-11) 앞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국 ‘베엘’에 이릅니다(창35:6).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엘엘로헤이스라엘’ 즉,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엘베엘’ 즉, ‘베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신이 주체가 되던 자리에서 내려온 것입니다(창35:7).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바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고 하십니다(창

삶’을 사는 야곱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복’을 받은 야곱은 성경에서 급격히 사라집니다. 성경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의 죽음(창35:8)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창35:16-19)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죽음도 기록합니다(창35:28,29). 또 장남인 르우벤이 죽은 라헬의 여종과 동침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창35:22).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만사형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 세상에서 마음이 떠나는 환경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에 묻혀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성경에 등장할 것입니다. 야곱은 후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 합니다.

“나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오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창47:9).

‘안식’하는 야곱

hfamilya@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역전의 은혜(창26:26-33)찬357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부탁했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창 26:28)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족장으로서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할 때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과 싸우지 않고 순순히 그 우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이삭을 쉬운 상대로 파악해 자기

땅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해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역전과 반전의 은혜가 임합니다.

화 야곱,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다(창27:1-29)찬274

이삭은 나이가 많고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시력이 약해졌다는 표현을 통해서 중요한 일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없어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은 '아버지 이삭의 분별력 상실',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 그리고 '야곱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배

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십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 거기에도 계시 하나님(창28:10-22)찬338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돼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중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돌 하나를 취해 베개로 삼고 노숙하게 뉘었습니다. 잠을 자던 중 야곱은 꿈을 꾸게 됐고 하늘로 이어진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

을 것이다.' 야곱은 베개 했던 돌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벧엘(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이 깨달은 것은 '아픔과 고통의 한복판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아픈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신자의 모든 삶의 순간이 '벧엘'입니다.

목 아! 그랬구나(창29:30-31)찬338

하나님께서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기대로 부풀어 있었으나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레아는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를 낳고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했으며 넷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그 의미는 '찬송'이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지만 유다를 낳은 후에 깨달은 것은 '아, 그랬구나! 남편도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유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금 이름을 바꾸며 삶의 방향을 바꾸다(창32:13-32)찬538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말을 들은 야곱은 하나님께 달려달라고 기도합니다(창32:1-12). 그의 관심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한 도끼를 부러뜨리시며 "네 이름이 무엇이냐?"(창32:27)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의 뜻

은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약탈자'이며, '이스라엘'의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야곱'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거룩한 씨름인 기도를 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갑시다.

토 하나님의 얼굴(창33:1-20)찬384

한도빠가 부러진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긴장감 가운데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야곱은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압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할 때 야곱은 새 이름을

받고 새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의 야곱에게 에서는 '생명의 위협자'로 느껴졌지만 변화된 야곱이 만난 에서는 '길 인도자'였습니다. 에서가 변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십니다. 내가 바뀌면 원수의 얼굴도 '하나님의 얼굴'로 보입니다.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5)

학교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6장까지 논의하였다. 다니엘서 12장은 전반기 1-6장과 후반기 7-12장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1-6장까지는 시대적 순서로 나열되었지만 7장부터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중심으로 더 세밀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시간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지금까지 필자는 15세 정도에 불과했던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왕조를 거치면서 최고봉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의 신앙 성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를 하고 다음 해부터 후반기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사상과 그의 가르침을 가장 황홀하게 받았던 계기가 바로 마태복음 26:55 말씀 읽었을 때이다. 바로 주님이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유대 제사장과 장로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군사들이 가롯 유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필자는 이미 다니엘을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한 바 있다. 천과 같이 같은, 죽으면 죽었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의 비결은 무엇일까? 누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그건 교육의 힘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부모 교육의 힘이고, 조기 교육의 힘이고, 신앙 교육의 힘이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다와 함께 그를 체포하려 한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말인가?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 주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신다. 하나님인 주님이 죄악에 빠진 이 세상(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가르침(teaching)이다. 필자는 여기서 감격한다.

그렇다. 교육은 그저 산다는 사람들의 풍월을 읊는 놀이기 전하 아니라는 것이다. 학교 교육이 좀 부족해도 부모님들의 뚜렷한 가치관과 열정이 있다면, 부모의 올바른 믿음과 신앙적 세계관이 있다면 다니엘과 같은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조기교육의 핵심은 인격, 신앙, 가치관 등 기본 교육 공립학교 크리스천 교사는 선교사, 상담가, 비저너리

면 허황된 이야기일까? 아니다.

Thomas Edison는 어릴 때 지적 능력이 부족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선생님이 낙인을 찍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품고 격려하였기에 그는 인류역사상 최고의 발명가가 될 수 있었다.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기에 다신교가 횡행했던 이집트 궁궐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

주님은 3년 공생애 동안 가르치셨다. Preaching과 healing 역시 teaching의 일환이었다. 그리하여 그분은 3년 동안 무식했던(행4:13) 열두 제자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고 그들이 이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믿은 순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모든 그 이후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겨 놓은 채 승천하셨다.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권능에 힘입어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진리와 복음, 구원과 은혜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르침의 역사로 어두워졌던 세계가 구원의 등불로 밝혀지기 시작했고 그 어디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가르침의 역사가 바로 지금 우리까지 이어오고 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주위에 온통 그를 시기하는 자들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적대시한 그런 영적 환경에서 깨끗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된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부모 교육의 힘이고, 조기 교육의 힘이다. 어릴 때의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4-14 Window(4살부터 14살 사이에 아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자) 개념이 등장하게 된 지도 모르겠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해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20). 이 가르침의 역사의 최고봉이 바로 다니엘이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바로 부모이다. 바로 다니엘의 부모처럼, 모세의 부모처럼. 모든 아이들의 가르침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많은 부모들이 현재 교육제도를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기꺼이 지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모순이다. 부모의 교육권을 확립해야 한다.

한 가지 꼭 짚고 갈 것이 있다. 바로 조기교육의 내용이다. 어떤 부모님들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예체능, 언어, 다양한 학습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에, 조기교육의 핵심은 인격 교육, 신앙교육, 가치관/세계관 교육, 태도와 인성 교육이다. 조기 교육은 기본 교육이 테크닉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찍부터 테크닉을 가르치고, 기술을 습득하려 한다. 그러다 보니 더 발전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조기교육은 기본기 단련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자녀 교육의 주 담당자는 바로 부모이다. 교회나 학교는 바로 보조 역할이라는 것을 부모님들은 알았으면 좋겠다. 자녀의 교육을 학교에 맡겨서 그 뒤에 숨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사람들은 현재 학교 제도와 교육내용을 비판하면서 학교가 무슨 악한 영의 지배하에 있는 것처럼 오도한다. (16면으로 계속)

필자는 교육을 통해 개인이 변화되고 세계가 바뀌어 진다고 굳게 믿는다. 필자가 예수님의 교육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뉴저지밀알선교단 단장 강원호 목사 장애인 선교 “복음과 사랑의 실천” (15)



하나님나라 복음에 기반 한 뉴저지밀알선교단의 장애인 사역

3. 방과후 학교

매일 오후 3시30분부터 6시까지 방과후 학교를 한다. 장애학생들이 보통 2시에 학교에서 끝난다. 그 이후에는 갈 곳이 별로 없다. 비장애 학생들은 학원도 가고, 운동도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장애학생들은 집에만 있어야 한다. 장애인 부모들이 직장이 필요하지만 그 자녀들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다. 3시쯤 끝나는 직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는 장애학생뿐 아니라 그 부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장애학생들이 학교에서 버스로 직접 오면 3시간 정도 프로그램 제공하고 6시 끝나면 집에 직접 데려다준다. 봉사자와 장애학생 매일 평균 20명 정도가 모인다.

4. 주일예배

일반교회에 갈 수 없는 장애인들이나 장애인 선교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매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일예배와 봉사를 한다. 학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매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한다. 보통 토요일 사람의 교실 시간을 확대하여 여러 일반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동안 배운 장애학생과 봉사자들의 순서를 발표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의 존재를 알리고 계몽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 5월 커피하우스

매년 5월 고등학교 때 봉사했던 봉사자들이 대학생이 되어서도 장애인 학생들과 추억여행을 위해 경비를 마련하고자 일일 찾집을 연다.



다.

4. 7월 밀알사랑의 캠프

밀알선교단은 3가지 장애인 평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평등하며 둘째, 친구 되는 자리에서 평등하며 셋째, 일하는 자리에서 평등하기를 소원한다. 그 중에 무엇보다도 예배하는 자리에서 평등하기를 원한다. 장애인들에게는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다. 많은 사람들은 수양회도 가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예배도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성경말씀을 배우고 누릴 기회가 많지만 장애인들은 그러하지 못하다. 그래서 밀알은 25년 전에 사랑의 캠프를 시작했다. 귀한 목사님들을 통해 주님 말씀을 배우고 600명 이상이

방과후 학교, 주일예배 봉사로 부모에게도 유익 4월 장애인의 날 행사부터 월별 행사계획 진행

생봉사자들은 오전 10시에 와서 오후 2시까지 봉사를 한다. 어른 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점심식사 후 1시부터 2시까지 생과 나눔이라는 시간을 갖는다. 장애학생들은 10시45분에 와서 어른들과 함께 찬양하다가 11시에 따로 학생 예배를 드린다. 장애학생들이 일반 교회에는 잘 적응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부모들은 그 학생들을 맡겨놓고 다른 교회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 부모들은 특히 예배를 통해 주님 은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자녀에 신경을 쓰려다 보니 예배를 잘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주일 밀알예배는 장애학생들 뿐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있다. 약 50명 정도가 예배하고 봉사하는데 일반교회를 마치고 봉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다.

제6절 뉴저지밀알의 월별 사역 현황

1. 4월 장애인의 날 행사

각종 음료와 분식들을 판매한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공연도 하고 음식을 판다. 이 대학생들이 뉴저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시 밀알에 와서 봉사를 하기도 한다. 때론 마라톤 대회도 한다. 모여지는 기금을 가지고 겨울에 플로리다 디즈니 여행을 계획한다.

장애학생들은 잘 여행을 하지 못한다. 신체적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 문제, 봉사자 부족도 있다. 그래서 대학생 봉사자들이 가이드를 하고 경비도 마련하여 여행의 기쁨을 장애인들에게 준다.

3. 6월 나눔음악회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으로 장애인 친구들과 비장애인 친구들이 아름다운 선율이 맞추어 은혜 받는 시간이다. 뉴저지 나눔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수고하고 있으며 때론 연극 공연을 하기도 한다. 모여지는 수익금은 밀알장애인 쉼터를 위해 쓴다. 매년 6월 마지막 주일 저녁에 열리며 200 여명 정도가 모인

모여 친교하며 3일 동안 전국잔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봉사자들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다. 쓸 것 조금 줄이고 교회 행사비 조금 아껴서 장애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며 서로 친구가 되며 행복한 3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미 동부에서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샬럿, 애틀랜타, 리치몬드밀알에서 모인다. 그리고 서부에서는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산호세, 시애틀, 밴쿠버 밀알에서 500여명 정도가 매년 모인다. 장애인들이 멀리 여행할 기회가 적고 많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하는 기회도 적기 때문에 일년내내 기다리는 모임이기도 하다. 아침저녁으로 예배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간증과 특강, 의료서비스, 발 마사지 등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그리고 다른 지역 장애인들과 봉사자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다.

miju92@gmail.com

선교 펴기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

이준성 선교사
(vision 800 Global 대표)

두달이 되었을까, 마음이 혼동스럽고 허전하고 우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갓 년기가 다시 돌아 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그런지를 몰랐습니다. 사역에 열매도 보이고 여러 사역으로 바쁘며 기뻐해야 할 일들로 넘치는데..

막내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명문 대학이라는 UC Berkeley(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 입학이 되어 심리학 전공을 한다고 하여 데려다주고 왔습니다. 큰 아들은 이제 일주일 후면 하나님과 선교를 사랑하는 자매와 결혼을 할 것이며, 좋은 일들로 넘치는데... 그러나 마음은 우울하였습니다... 그럴 때 함께 사역을 하는 심리학 전공한 선교사가 '목사님, 목사님은 duelo를 겪고 있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사훈련학교를 시작하면서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19가 발생하여 1년 반이 지난 오늘 지금까지도 전 인류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벌써 감염자 수가 4백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백만이 넘어서는 현실에 이제 변이 델타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다시금 영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도시를 봉쇄하고 국경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대면예배를 금지하거나 또한 인원을 제한함으로 교회가 임은 타격과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주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며 갱신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전 800 글로벌은 2019년 4월 선교대회로 창립되며 이러한 시기를 겪으며, 성장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같은 해 9월, 1기 선교사 훈련학교를 진행하며 그중 50%가 헌신하며, 코비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과 아프리카 세네갈로와 또한 멕시코로 파송되며 앞으로 레바논과 터키 또한 필리핀 모슬렘 지역으로 나가기 준비하는 세 가족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쿠바에서 170명의 헌신적인 대상으로 선교훈련을 진행하였고 이제는 다시 2기 엘 살바도르에 선교사 훈련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중남미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헌신하며 선교의 꿈을 가지고 오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침하면 중남미는 폐렴을 앓는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에 민감한 지역으로 이번 코비드 상황으로 중

남미 경제는 최대한 악화되었고 힘들지만 그런 상황을 이겨나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헌신하는 청년들과 중장년을 볼 때 이 땅의 희망과 가능성을 보며 주님과 함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보게 됩니다.

기도로 함께 동역하며 지금까지 함께 하여 주셨던 여러분,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이 더욱 가까워져 왔다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투자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헌신자 한 사람을 품는 것은 그와 함께 선교지를 품는 것입니다. 선교사 한 사람을 영적 자녀로 그와 함께 선교지를 품는 것이며, 선교사 한 사람을 영적 자녀로 세계선교를 함께 품어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계속되는 선교일정과 특별한 만남들

7월과 8월은 계속하여 선교동원 사역으로 바쁜 일정을 맞게 되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를 다녀오고 Atlanta와 Boston 또한 멕시코 여러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펜데믹 속에서 다니는 것은 쉽지만은 않네요... 공황과 국경을 넘을 때마다 건강진단서를 작성하며, 장시간의 비행기 속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지내는 것... 또한, 지난 과테말라 일정은 그 나라에 델타 변이로 인하여 상황



이 악화되며 여러 집회일정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준비하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의 선교를 이루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Atlanta와 Boston 지역의 히스패닉교회들을 방문, 선교동원을 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멕시코에 Puebla와 멕시코시티를 방문하여 선교동원을 하며 이번 훈련학교로 준비하고 있는 컨디테이트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지난 달 특별하였던 엔세나다 부분로 방문 온 제자들의 부부였습니다. 호세와 라이사 부부는 제가 멕시코 선교사로 신학교 사역을 9년 감당하였을 때 캠퍼스 커플로 만난 부부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치아파스 이흐투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인 선교사님들이 시작한 학교에서 교목으로 12년을 섬기던 중 교회회회를 꿈꾸며 안전하고 편안하였던 사역을 그만두고 목회를 시작하였으나, 목회를 맡은 곳은 건물과 제정으로 분열을 겪고 계속하여 상처로 갈등이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제 20회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20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써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가지신 분.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 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5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ewlife-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500자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21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21년 12월 12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수여식 2021년 12월 26일 주일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NLChicago.org
newlifechicago@yahoo.com
T.847-359-5200 F.847-359-8409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공고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위치한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주교파, 자체성전보유,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 1)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 2) 이민교회에서 3년이상 담임목사(부목사 포함) 경력 있으신 분
-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 1) 본인 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 및 간증서
-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회분
-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5) 목사 안수 증명서
- 6)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ch2019@gmail.com
-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 5) 지원 관련 문의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축망받던 밀레니얼 세대...실상은 달라!

BBC, 세대간 격차조사 통해 밀레니얼 세대의 현실과 이상 부조화 보도

밀레니얼 세대는 어렸을 때부터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세계적인 정보의 흐름과 함께 했던 최초의 세대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기대치 또한 높은 세대이기도 하다. 부모에 비해 더 개방적이고 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1981년과 1996년 사이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더 풍요롭고 세계화된 세상을 꿈꾼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의 실상은 다르다. 이들은 부모보다 더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점이나 내 집 마련, 자동차 구매 시기 등 성인이 됐음을 보여주는 여러 이정표에 도달하는 데도 평균적으로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기대와 현실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밀레니얼 세대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온갖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짤이나 영상)의 소재가 됐고, '실패'와 '게으름', 혹은 부모 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등 악플의 대상이 됐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뒤따라오는 Z세대에게도 무시를 받고 있다. Z세대는 밀레니얼 세대가 "오글거린다"고 말한다.

대체 밀레니얼 세대는 뭐가 잘못됐을까? 그들은 정말로 실패한 걸까(IN BBC NEWS EXPLAINING MILLENNIALS' UNEXPECTED REAL-WORLD JOURNEY: Many Millennials feel like they have not reached the ambitious goals they set earlier in life)?

많은 학자들은 밀레니얼 세대 자체를 비난할 수 없다는 점을 우선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세대 간 격차를 조사하는 회사 키네틱스(Center for Generation Kineticism)의 사장 제이슨 도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스마트폰 시대 초기에 성인이 됐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이들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나중에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고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 사장은 밀레니얼 세대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말했다. 2008년과 2009년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침체가 찾아왔고 최근엔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여러 면에

서 크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췄지만, 대규모 정리해고와 인플레이션, 임금 침체, 생활비 상승,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해 6월 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미국 역사상 가장 불운한 세대"라고 명명했다. 이 매체는 "현재 코로나 사태로 위기인 점까지 고려하면 밀레니얼 세대는 그 어느 세대보다 더딘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들에겐 평생 경제적

이 가게 된다"고 전망했다.

물론 밀레니얼 뿐 아니라 다른 세대도 그들만의 난관에 부딪힌 경험이 있다. 도시 사장은 이런 힘든 순간이 한 세대의 가치관을 결정짓는다고 분석했다.

건으로 결정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1928-1945년에 태어난 이른바 "침묵" 세대는 2차 세계대전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 베이비붐 세대(1946-1964년)는 베트남 전쟁이나 인간의



미국 역사상 가장 불운한 세대...코로나까지 겹쳐 경제침체 교육기회 많으나 '부모품 못 벗어난다' Z세대에도 무시당해

상처가 남게 될 것"이라면서 "이들은 내 집 마련도 늦어지는 데다 낮은 임금을 감당해야 하는 등 필요와는 거리가 먼 삶을 이

특정 세대가 갖는 두려움, 교육이나 삶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 가치관,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미래에 대한 모습이 특정 사

달 착륙과 같은 세계사의 한 장면을 목격했다. 이후 등장한 X세대(1965-1980년)는 냉전의 종말과 후천성 면역결핍증

돼 있어요. 또한 대규모 고용주 중 상당수가 다국적 기업들이죠.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상호 연결성을 더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 사장은 밀레니얼 세대는 정보의 흐름과 상호 연결성 때문에 글로벌한 사건을 더 잘 인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 국지적인 사건이 세계적인 사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굳이 세계대전과 같은 규모의 큰 사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전 한 나라의 금융 위기가 바로 다른 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전 세계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주 중대한 변화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리서치 회사인 퓨(Pew)의 마이클 디모치 사장은 "이런 명칭은 시대별 관점 변화를 분석하는 도구"라고 전했다.

"이런 세대 구별을 통해 글로벌한 사건이나 기술, 경제, 사회 전반에 찾아온 변화 등이 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죠."

퓨 리서치는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로 정의한다. 반면 도시의 연구소는 1977년과 1995년 사이를 밀레니얼 세대 출생 시기로 본다.

도시 사장은 출생 시기보다는 사회적 요인이 밀레니얼 세대를 결정한다고 봤다. 그는 "거주지가 도시였는지 교외였는지 차이, 부모의 소득과 교육 수준, 처음 접하게 된 기술의 종류" 등이 더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1995년생까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9·11사태 때문이죠. 95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9.11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니엘 영성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예전에 미국 정부가 Common Core State Standards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을 때 교사 교육에 전담하고 있는 필자는 몇몇의 크리스천 학부모님들로부터 이상한 항의에 시달린 적이 있었다. 바로 이런 새로운 제도가 비기독교적인 내용을 학교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 영향을 제거하기 위한 사탄의 공격이라는 것이다. 지금도 그러한 시각으로 학교 교과과정과 행정을 매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 한마디로 우리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을 매우 위험하며 하루 빨리 공립 학교에서 아이들을 빼내오는 것이 그들을 어두운 영적 생활에서 해방시켜준다는 이론이다(물론 필자는 동의하지 않지만).

유사 이래 학교는 모든 이데올로기의 소용돌이에서 헤쳐 나오지 못했다. 자본주의 폐해가 극심했던 1970-1980년대에는 학교 교과 과정이 자본가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는 시너에 불과하다면서 학교는 지배계급을 양산하는 기구에 불과하다는 이론이 있었다. 학교가 아이들의 배움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배운 지식의 80%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배운다고 있기 때문에 학교는 이미 그 기능을 잃었다면서 학교를 철폐해야 한다는 이론이 생겨나기도 했다(Ivan Illich가 지은 Deschooling society 혹은 Everette Reimer가 지은 School is dead라는 책을 읽어보라).

미국에서 한창 이민자들이 증가했을 때 학교는 이민자들에게 미국의 가치를 우월한 것으로 이민자들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면서 학교 커리큘

럼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때 휩쓸기도 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원래 흡스쿨이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당시 공립학교 커리큘럼에 반대 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자유주의적 교육을 실시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지금은 그 반대로 공립 학교가 반 기독교적 가치로 편향되어 있다면서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모님들에 의해 더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학교는 항상 외풍에 시달려왔다. 특히 민주주의의 다양한 견해를 용납하는 미국에서 더 그랬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써야한다는 부모들과 쓰면 안 된다는 부모들의 양극단의 견해에 어디 편을 들어야 할 것인가? 정녕 학교는 폐쇄되어야 하는 것인가? 공립학교를 죄다 부수고 교회마다 학교를 건립해야 하는 것

이 능사인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지켜 나가야 한다. 학교에는 하나님의 고유한 창조의 원리가 있다. 우리가 할 일은 학교의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관심 있는 분들은 Albert Wolters가 지은 Creation Regained 책을 읽어 보시기를 권면한다).

필자는 학교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미국에는 현재 350만명의 교사가 있다. 그중 에 많은 선생님들이 크리스천들이고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필자처럼 교사양성 대학에서 미래의 교사들을 양육하는 교수들 대부분도 역시 크리스천들이다. 그들은 미래의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도록 훈련한 후에 각종 공립학교로 파송하고 있다. 그들은 곧 선교사들이요, 상담가들이고 비저너리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오늘의 공립 학교는 미래가 있다.

필자의 두 자녀들도 모두 공립 학교를 나왔고 딸은 지금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만약 필자에게 또 다른 자녀가 생긴다면 필자는 그를 공립학교로 보낼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학교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hlee0414@gmail.com

선교편지

(15면에서 계속)

다시 분열의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교회를 사임하고 찾아와 멘토링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걱정을 하지 않던 부부

새로운 프로젝트

- 세네갈 약품 보내기 운동.
-중남미 어려운 교회 지도자들 온라인 사역을 위하여 컴퓨터와 패드 보내기 운동.

이준성 선교사 jsmmission@me.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1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3.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4.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믿음과 0.2%의 가능성 김명길 클란출판사, 돌파하는 믿음 밥 소르기 스텝스톤, 간절한 매달림 토미 테니 규장, 세상이 흉내낼수 없는 기독교 제라드 윌슨 생명의 말씀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피터 스카지로 두란노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한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